
2020-2학기
제1회 목원스톡스백일장

우수작품집



Contents

- | | | | |
|------|-----------------------------|------|--------------------------------------|
| 11분반 | 그저 마스크여서 특별했던 해인사 나들이 /박시형 | 12분반 | 내가 사랑하는 작은 것들에 관해 /윤해영 |
| 13분반 | 20살이 된 나의 현재 행복은 무엇일까? /최영우 | 14분반 | 코로나 시대여도 괜찮아 /유상명 |
| 15분반 |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재영 | 16분반 |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정상록 |
| 17분반 | 코로나 시대 마스크의 양면성 /김예은 | 18분반 | 우리의 삶과 하나된 마스크 /장유진 |
| 19분반 | 20살, 인생의 오르막길을 향하다 /김하영 | 20분반 | 그림에서 얻는 성취, 행복 /명리나 |
| 21분반 | 나의 행복은 지금의 나로부터 /박세영 | 22분반 | 가면 /선윤혜 |
| 23분반 | 작은 행복에서 큰 행복까지 /현지수 | 24분반 | 오늘을 살아갈 것 /박서화 |
| 25분반 |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 /오소희 | 26분반 | 수업 중 행복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나의 행복'의 모습 /김재현 |
| 27분반 | 행복이란 뭘까요? /신승준 | 28분반 | 나의 행복 /김은서 |
| 29분반 | 불평 /안은정 | 30분반 |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김요셉 |
| 31분반 |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전소희 | 32분반 | 사소한 일상도 행복이다 /김예진 |
| 33분반 | 존재에 있어 살아 숨쉬는 것 /김예원 | 34분반 | 다양한 취미는 나의 행복 /박창순 |
| 35분반 | 행복을 통해 성장하는 나 /김해인 | 36분반 | 나의 소소한 행복 /최은아 |
| 37분반 | 모든 것에 감사해지는 순간 /김진주 | 38분반 | 빌어먹을 마스크 /윤도겸 |
| 39분반 | 대학 생활 로망은 잠깐 보류 /서재성 | 40분반 | "괜찮아, 대학생은 아직 아기지 뭐." /박유민 |
| 41분반 | 마스크 뒤에 미소 /조은필 | 42분반 |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주연 |
| 43분반 | 나의 유학생할 /웅웬티디에우마이 | 44분반 | 행복의 끊는점 /김예진 |
| 45분반 |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최린 | 46분반 | 내 안의 작은 씨앗 /박유정 |

Contents

47분반 포커 페이스 /박윤수	48분반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 /임경은
49분반 소중한 시간 그리고 삶의 행복 /박종호	50분반 나의 우울증 이야기 /조연수
51분반 내가 좋아하는 것? /배수정	52분반 마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삶 /조민영
53분반 마스크 속 맨얼굴 /이재광	54분반 내가 행복을 다루는 방법 /류서단
55분반 어쩌다 되어 버린 21살, 그리고 대학생 /성해주	56분반 안전 도구 /이지운
57분반 나의 새내기,나의 첫 대학 생활 /김지나	58분반 소확행(小確幸) /이승언
59분반 내가 스스로 일궈낸 작은 행복들 /김민지	60분반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수빈
61분반 일상에서 행복 찾기 /임소연	62분반 마스크의 의무화 /천성연
63분반 내가 꿈꿔왔던 대학생 /표수민	64분반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 /양채원
65분반 나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최혜림	66분반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유빈
67분반 나의(자신의) 행복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채원	68분반 누구십니까? /장홍찬
70분반 감사하기 /이지운	71분반 누구나 다른 행복의 기준 /정영심
72분반 마스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서영	73분반 행복은 안전에서부터 온다 /한상준
74분반 나의 대학생활 /김수빈	

토론과글쓰기2 11분반 우수작

그저 마스크여서 특별했던 해인사 나들이

박시형

산업디자인학과

나는 21년생을 살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껴던 적은 아마 8살 때 즈음에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후 처음이지 싶다. 아니, 아마 인플루엔자보다 더 오랫동안 평생 봐올 마스크 종류를 1년 동안 다 본 듯싶다.

얼마 전 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맞춰 합천 해인사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맑고 시원한 새벽 산의 정기와 나의 뜨거운 숨결이 마스크 안에 섞여 이슬이 맺혔다. 그 때문에 평소보다 안경에 김이 많이 서렸지만, 오랜만에 마스크 안으로 들어 와준 손님이었기에 반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마 그간 마스크 때문에 전에는 마음껏 누렸던 자연의 맑은 공기하며 사람들의 표정들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른다. 반대로 마스크가 있었기에 느끼지 못했던 주위의 사소한 행복을 그리워하고 정신적으로 더욱 일깨우게 된 것 같다.

해인사 대응전은 갈 때마다 매년 다른 느낌을 준다. 올해는 마스크를 착용한 모든 방문객들이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중 마스크를 낀 채 특! 밀면 굴러다닐 것 같은 콩알만 한 아이가 가장 인상 깊었다. 아이를 보며 나의 유별났던 장난꾸러기 시절이 떠올랐다. 아마 그때의 나였다면 항상 같이 다녔던 그리고 21년째 같이 지내 온 강아지 인형에게도 마스크를 씌워줬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빠진 나는 혼자서 웃음을 터트렸다. 그리곤

어린 유년 시절의 나를 잠시 접어둔 채, 해인사를 돌아다녔다.

구경을 다하고 해인사 앞마당을 돌아다니며 지난 겨울방학 때, 템플스테이를 갔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떠오르는 생각들과 함께 해인사 안에 위치한 찻집에서 따듯한 솔잎차를 한 모금하며 시간을 보냈다. 옆에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던 엄마와 아빠도 추억에 빠진 듯하였다. 지나온 시간들 중 엄마도 아빠도 나와 같은 나이가 있었고, 열심히 삶을 일궈 오셔서 지금의 화목하고 멋진 가정을 꾸리시는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웠고 마음 한편이 따듯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빠의 “마스크 끼고 이제 나가자” 라는 갑작스러운 말씀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외동인 아들로써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밝은 미소로 “네. 아빠” 라고 대답을 했다. 나의 밝은 미소를 보고 뿌듯해 하시는 아빠, 그런 아빠와 아들이 밝은 대화로 오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엄마, 마스크로 서로의 표정은 볼 순 없었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긴 건 확실했다. 오랜만에 나들이 갔던 합천 해인사 나들이는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지난 과거들, 더욱 개인주의적으로 바뀔 미래가 다가온다지만 마스크가 있었기에 주위 사람들을 한 번 더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가 때론 고맙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나들이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줘서 좋았다.

토론과글쓰기2 12분반 우수작

내가 사랑하는 작은 것들에 관해

(부제: 나는 목 디스크 걸린 해바라기다)

윤해(海)영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이든 작은 것보다 큰 것을 더 좋아했다. 커다란 옷, 커다란 인형, 커다란 집... 이것은 또래에 비해 키가 너무 커서 의아한 시선을 받는 ‘나’에 대한 사랑이며, 좁은 집에서 쫓겨 사는 ‘나’를 위한 변호이고, 커다란 사람이 되고 싶은 속 좁은 ‘나’의 소망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커다란 무언가를 올려다보는 것에 싫증나기 시작했다. 닿을 수 없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는 필연적으로 목이 꺾이고 만다. 남들이 보기엔 웃길지 몰라도 내겐 너무 어려웠던 20살 인생, 웃기게도 목 디스크에 걸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가려고 애쓴다. 심지어 시간보다 더 빨라지려고 노력한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뒤쳐진다. 이것은 모순이다. 노력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른’이다. 나도 한때 20살 성인이 되면 뿡! 하고 멋진 어른이 되는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겪은 20살은 방구석에서 작은 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였다.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이 작은 것처럼, 작은 모니터 너머로 본 세상은 무척이나 작았다. 뭐하나 상상과 맞는 게 없었다. 일단 어릴 적 내 상상 속에는 코로나가 없었다. 그래서 지쳤다. 어차피 볼 수 있는 게 작은 세상뿐이어서.

그런데 웃기게도 큰 걸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누우니까 보이더라, 작지만 재미난 것들이! 해를 오래 쳐다보다가 주변을 둘러보면 잔상이 생겨 잘 보이지 않는다. 해를 올려다보는 걸 포기한 비로소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게임 하나에 신나서 노트북을 붙잡고 있는 언니였다. 저런 언니를 두고도 멋진 어른을 상상하던 내가 참 웃겼다. 그것을 인정한 날, 처음으로 언니에게 내 돈으로 햄버거를 사주었다. 언니는 회사에 다니고 돈도 나보다 많아서 뭘 사주기가 민망했다. 그런데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하니 웬일이냐며 신나게 웃는 언니를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뭘 살 때 두 개씩 사는 버릇이 생겼다.

다음으로 보인 건 단톡방에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있는 친구들이었다. 애네도 나랑 같이 어른이 됐는데 똑같은 걸 보니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아쉬웠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잘 안 만났다. 고3이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변명도 가지각색이었다. 애들한테 다 같이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다. 처음엔 다들 귀찮아했지만 이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하는 것 같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네 집으로 온 나를 포함해서 다들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자취를 시작해서 몸이 굉장히 멀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 같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휴대폰 없던 조선 시대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다.

내 오랜 소원은 로또 1등이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도 로또를 구매해본 적은 없다. 친구들과 로또 1등이 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토론할 때도 있다. 처음에 토론할 땐 나름 진지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마냥 재밌는 이야깃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로또 1등을 노리고 돈을 쓸 바에야 그 걸로 코인노래방이나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2개 사서 언니랑 나눠 먹을 거다. 이게 지금의 내 행복이다. 한번 다쳐서 드러눕고 나니까, 닿을 수 없는 해(太陽)를 목 아프게 바라볼 바에는 모든 것을 포용할 것만 같은 해(海)가 되고 싶어졌다.

토론과글쓰기2 13분반 우수작

20살이 된 나의 현재 행복은 무엇일까?

최영우

의생명 · 보건학부

나는 올해 20살이 되었다. 나는 20살이 되면 시간에 쫓겨 캠퍼스를 뛰어 다니는 나, 학교 친구들과, 선·후배들과 같이 놀러도 가는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상상하곤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피할 수 없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고, 하루에 손을 수도 없이 닦게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꿈꾸던 나의 20살의 학교생활과 전혀 다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아쉽지만 지금 행복하다. 그 이유는 이제 시작한다.

나의 첫 번째 행복은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시간들인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부모님이 바빠서서, 다른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서, 그냥(어색해서), 가족 간 갈등 등 여러 이유가 있다. 나는 다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나에게 무언가 주어진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해결하기 바쁘고,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해서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잡지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이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쉽다. 사람 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가족들과 잠깐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이

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시간이다. 나는 올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세에 놀랐다. 인간은 나 포함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어있는데 그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니 가슴이 먹먹했다. 너무 늦게 안 것 같은 아쉬움과 속상함에 나는 할머니댁에 자주 가게 되었다. 올해 들어 특히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주 가게 되었는데, 확실히 자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게 느껴지고,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굳이 무엇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나의 두 번째 행복은 자존감 높이기이다. 행복한 것에 웬 자존감? 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 줘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사람 사이에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다 같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칭찬하는 일을 만들어야 한다. 큰일은 아직 못하지만 소소하게 다른 사람을 돕거나, 작은 액수지만 내 이름으로 후원하기 등 사소한 것들로 ‘나’ 라는 사람을 내가 먼저 칭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남의 눈치보단 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물론 내가 양보하고, 인정할 땐 인정을 하고, 나의 문제점을 알아 이를 나를 위해 고쳐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행복한지, 힘들어 하는지 등 나에게 대해서 알게 되면 나를 보듬고 사랑할 줄 알게 되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사소한 일로 인해 자존감을 쌓았으면 좋겠다.

나의 세 번째 행복은 버킷리스트 세우기이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내가 싫어하는 일, 하기 싫은 일 등을 내색도 못하고,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학생이었다. 그런데 20살이 되니까 확실히 내가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도전하고 싶었던 일들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울 수도

있게 되었다. 나는 올해가 되자마자 친구와 같이 20살의 버킷리스트를 소신껏 세워 보았다. 그중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도전은 운전면허 취득하기이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시간이 많이 시간이 날 때부터 친구와 같이 필기 공부하여 면허 학원 등록을 하고 올해 초에 면허를 따게 되었다. 이렇게 올해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지우게 되니까 성취감과 새로운 20대를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새롭고 뿌듯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세우다 보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 해를 보낼지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먼저 해당 연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놓는다. 그다음 달이 바뀔 때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계획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참고, 하게 되고,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면 포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작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의 행복은 사소한 일들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짧은 인생 후회 없고 아쉽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다 같이 행복한 삶은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굳이 어딜 가지 않아도 같이 있음에 감사하고, 앞보단 뒤를 보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원동력은 다른 무엇도 아닌 미래의 나 자신으로 내가 행복해야 그것들을 좋은 영향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면 그게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 시대여도 괜찮아

유상명
건축학부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힘든 2020년, 나는 대학생 1학년 새내기이다. 분명 나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중학교 때부터 안고 온 수많은 로망들과 함께 입학을 했지만, ‘이게 뭐야!’ 코로나 때문에 그 로망들을 하나도 실현시키지 못했다. 그래도 실기위주의 학과라서 그런가? 수업 때문에 학교는 매주 나간다. 덕분에 학교도 구경해보고, 같은 과 동기들과 친해지고 놀기도 한다.

하지만 1학기 때까지만 해도 나는 과의 1학년 80명 중에 아는 사람은 고작 3명인 말 그대로 ‘아싸’ 였다. 그래도 대학교를 와보니 고등학교 때와는 확실히 달랐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두발규정도 심각하게 엄격하고 핸드폰은 아예 들고 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책상의 한쪽에는 설게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준비물,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핸드폰을 두고 수업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등학교 때에는 상상도 못했었겠지. 수업시간에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기도 했다. 아 물론 수업을 대충 들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혼자 조용히 설계할 때에만 노래를 들었다. 이래봐도 학점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신기함을 느끼며 수업을 들을 때에, 뭔가 많이 허전함을 느꼈다. 분명 우리는 신입생이고, 강의실에는 20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있었다. 충분히 우리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코로나 때문

인지 아니면 모두의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5시간이 되는 시간동안 모두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집에 갔다. 내가 원했던 캠퍼스 라이프는 이런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며 1학기는 아무런 추억 없이 지나갔다. 그렇게 방학에도 학교 친구들은 상상도 못하고 지나가고 어느새 2학기, 2학기도 초반에는 1학기랑 똑같이 지나가는 줄만 알았다. 그 때 학과에서 O.T를 준비해준 덕분에 선배님들도 뵙고, 어색했지만 동기들의 얼굴도 볼 수 있었다. 원래는 이 O.T도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지 않았다면 정말로 후회했을 것이다. 지금은 이 O.T에서 만난 친구들과 카톡방도 만들고, 수업시간에 다같이 딴 짓도 하고, 종종 모여 풋살도 하며 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요즘, 내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대학교에서의 로망들이 생각났다. 그 중 하나는 축제, 또 하나는 체육대회이다. 고등학교 때에는 대학교 축제라는 것이 되게 신기해보였다. 왜냐하면 학교에 연예인이 오기 때문이다. 몇몇 주변 친구들은 야간 자율 학습을 빼고 축제를 보러가기도 했지만, 성실했던(?)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학교에만 있었다. (사실은 동아리실에서 기타를 치거나 잠만 잤다.) 그렇게 꿈꿔왔던 축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비대면으로 축제를 한다. 심지어 나는 다음 학기에 군대를 갈 예정이라 적어도 2년은 지나야 제대로 된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내기 때의 축제가 날아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게 맞는 거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러려니 하고 있다. 복학할 때쯤이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없고 사람이 넘쳐나는 그런 캠퍼스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뿐이다. 그리고 체육대회, 나는 운동신경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운동 자체는 좋아한다. 그리고 먼저 대학교를 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대회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들었다. 아마 체육대회에 대한 로망은 선배들의 진실 반 거짓 반 이야기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다.

위에서도 많이 티를 냈지만, 지금 2020년 1년이 너무 아쉽다. 나는 분명

새내기인데, 벌써 1달 후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나는 군대를 가서 복학하면 22학번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현재 우리 학년을 ‘헌내기’, ‘미개봉 중고’ 등으로 표현한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처음에는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수업을 몇 번 나가보니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듣는 것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많기도 하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힘든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시간을 추억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그 때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아마 나는 행복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잃은 것도 많지만, 삶에 대해 배운 교훈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도전해보게 되었고, 오늘도 그 도전을 한다. 코로나 19가 지금 세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나에게서는 대학생으로서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비록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생 새내기 라이프를 제대로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 덕분에 중요한 것들도 찾고, 반성하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었다.

그래도 코로나가 없는 세상은 더욱 행복할 것이다. 코로나가 없는 대학 생활은 어떨까? 열린 강의실에서 교수님, 동기들과 함께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싶다.

토론과글쓰기2 15분반 우수작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재영

도시 · 환경 · 화학공학과

나는 어렸을 때 학원 끝나는 시간이 무척이나 좋았다. 단순히 학원이 끝나 기분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을 걸으며 맡는 장터의 냄새가 무척이나 좋았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얼마 있지도 않는 돈으로 무엇을 사먹을까 생각하며 행복한 고민에 빠지곤 했다. 어느 때와 같이 장터 아저씨는 날 반겨주셨고 난 손에 들린 봉투를 들고 집에 가는 길이 어느 때보다 가볍고 즐거웠다. 내 집을 향하는 것처럼 학원이 끝나면 항상 장터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당연했다.

내가 장터를 못 가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코로나 발병 이후 장터에는 오는 상인들도 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학원이 끝나고, 장터에 가면 항상 내게 보였던 장면이 아닌 너무나도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항상 맛이 좋고 싱싱한 과일을 가지고 오시던 과일 아저씨도, 멀리서부터 고소한 튀김 냄새가 나게 하시는 돈가스 집 아저씨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가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을 가든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터로 향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기만 했다. 나도 그 때문일까.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생각을 깊게 해보았다. 내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데가에 대해 생각을 했다. 누군가에게는 그

저 장터에 가 먹을 것을 사는 것처럼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따듯한 추억이자, 지난 시간을 버텨온 나의 진정한 행복이었기에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 시끌벅적한 소리와 생선 비린내, 고소하고 식욕을 돋우는 튀김 냄새마저 맡기 힘들어졌다.

1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모습도, 장터의 모습도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진 못했다. 물론 전보다 장터 사람들도 많아졌고, 오는 사람들도 또한 많아졌다. 그렇지만 내 추억 속에 있는 장터의 모습은 아니었다. 정겹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닌, 조용하며 작은 얘기 소리만 들리는 장터이기에만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는 대전에서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루 감염자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터는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 어느 수요일 날 나는 기대를 품고 장터에 들어섰다. 기적이 일어났다. 튀김 냄새도, 과일 아저씨도 돌아오셨다. 전보다 우렁차지는 않지만 큰 소리로 외치던 생선 집 아저씨도 계셨다. 발걸음은 다시 가벼워졌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이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나에게 무엇보다 큰 행복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코로나 19시대, 좌절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하나쯤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이는 이대로 큰 의미를 주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감사할 기회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며 산다.

토론과글쓰기2 16분반 우수작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정상록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나에게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해를 하나 뽑아보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2020년을 말할 것 같다. 그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이다. 20년을 살면서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등을 겪었지만, 그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는 달랐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전염병 대유행에 누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때로는 영화보다 현실이 더 영화 같다는 말이 있듯이 마치 이 상황이 영화 같았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 그럴 것이다. 하루하루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확진자들과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나도 속상했다. 이처럼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끼는 그 마스크 한 장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처음 코로나 유행이 발생했을 때, 나가지 않는다는 것에 답답하기도 했지만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에 내심 좋기도 했다. 나는 소위 말하는 집돌이, 집순이처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내 시간을 즐기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다. 가끔씩 머리를 자른다든가 편의점에 간다든가 하는 사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누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실천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한

테 독이 되었다. 귀찮다고 운동을 하지 않다보니 체중이 늘어나고 몸도 허약해졌고 사태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친구들이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는 말에도 가지 않다 보니 친구 관계도 조금씩 서먹해졌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나의 내면의 갈등이 컸다. 나는 원래 성향이 내성적이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억지로 나 자신을 외향적으로 바꾸었다. 물론 당시에는 즐거웠지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언젠가는 터지듯이 이번 해에 그 과부하가 온 것 같았다. 남들이 평소에 마스크를 쓸 때 나는 마치 가면과 같은 마스크를 쓰고 나 자신을 숨겼던 것 같다. 우울했고 또 심란했다. 2020년의 한 해를 나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라고도 생각했었다. 그만큼 내적으로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결국 그렇게 몇 달을 지내보니 얻은 결론이 있었다. 사람은 나약하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늘어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보고 자기 계발을 하자는 의미에서 독서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로 기타도 배웠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비록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지만 나의 내면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진 것 같이 후련했다.

나도 아직 완전히 갈피를 잡은 건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나 나처럼 정신적으로 힘들음을 느꼈던 사람들 모두 힘냈으면 좋겠다.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모두가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 편히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의 양면성

김예은

의생명·보건학부

지금은 코로나-19의 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우리는 그 유일한 예방법인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다. 하지만 수많은 매체에서 접해 왔듯이 ‘마스크’로 인해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싸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일이다. 물론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지만 이것에 따른 불편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가 1단계였을 때 온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 들렀다가 스터디 카페에서 저녁 11시경까지 마스크를 거의 한 번도 벗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 숨을 쉬는 게 힘들 정도로 답답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일을 겪은 이후로 ‘도대체 언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등의 생각을 자주 한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생각할수록 나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른 생각을 고쳐 ‘나만 힘든 일이 아니야, 이런 고난 뒤엔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등의 생각으로 바꾸곤 한다. 나는 요즘 매일 당연히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중이다. 당연히 놀러 다니고 노래방을 가고 영화나 연극 또는 공연을 보러 가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그 시절이 그렇다.

하지만 마스크가 부정적인 일들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TV를 보다가 청각 장애인이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 모양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광고를 봤다. 청각 장애인분들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마스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청각 장애인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느꼈다. 그 광고의 결론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광고를 보고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서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심하고 조금씩만 서로 배려하고 돕다 보면 언젠간 다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인간은 가장 힘들 때 자신의 본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도 입 모양이 보이는 마스크를 만드신 분들처럼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과 하나된 마스크

장유진
관현악학부

최근 우리 모두를 괴롭히며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전 세계 국가 모두가 해결책과 대비책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증상의 확진자들 또한 대거 등장하게 되고 열 체크와 그것에 나오는 정상체온의 글자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하루하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바뀐 일상은 무엇일까?

코로나로 인해 제일 크게 찾아온 일상의 변화는 바로 ‘마스크’다. 코로나가 찾아오기 이전에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착용하지 않았고 필요로 하지 않았던 그것이다.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얼굴이라며 가리기용으로 사용했었고,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마스크는 다소 어색한 물품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로 찾아오게 된 이후 대한민국에는 무서운 마스크 열풍이 불었다. 누군가는 몇 백 개를 집에 쟁여놓기 위해 사두고 누군가는 마스크 하나를 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약국을 가야했다.

대한민국의 마스크 열풍 일명 ‘마스크 대란’이 찾아오면서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란 정해진 날짜에, 나라에서 정해진 주민번호 숫자에 맞춰 1인당 약국에서 일주일에 2개의 마스크

크를 살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정책이다. 처음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후에도 엄청난 인파와 그에 비해 적었던 마스크의 물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많은 회사들의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될수록 우리 현실 속 마스크 또한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올해 초 겨울, 추운 날씨와 온도로 ‘감기’ 증상과 비슷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우리는 kf94 마스크를 썼었다. 비교적 다른 마스크들보다 두껍고 튼튼하여 외부의 공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큰 장점이 있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시기 모두가 이 마스크를 썼었다.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우리의 마스크에도 변화는 찾아왔다. 두꺼웠던 kf94마스크보다 더 가볍고 바이러스 보완도 되는 비말차단 마스크가 등장한 것이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바이러스 확률이 낮아져 여름에는 마스크 없이 생활이 가능했다고 했던 기사와 달리 우리의 여름은 비말차단 마스크와 하나 되는 삶을 겪어야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마스크의 등장이 패션계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평소에 마스크 착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스크 스트랩이 다양한 디자인과 색다른 모습으로 패션계에도 한 획을 긋게 해준 것이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랩을 직접 만들기도 하며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가게에 들어가면 옆에 스트랩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놓기도 한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현실은 슬프지만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행복 같은 존재가 되어간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찾아온 마스크의 필요성, 그에 따라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마스크는 우리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마스크가 없었던 생활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에 들어온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어 버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기분 탓일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으로 우리에게도 마스크에게 안녕을 고할 날이어서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토론과글쓰기2 19분반 우수작

20살, 인생의 오르막길을 향하다

김하영
영어교육과

고등학생이던 누구나 한 번쯤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맞이하게 될 대학 생활의 낭만과 로망을 꿈꿔봤을 것이다. 내가 재학 중인 목원대학교는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15분 이내에 있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매년 가을이 되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 창밖 너머 대학교로부터 들리는 축제 음악 소리와 함께 불꽃놀이가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하루라도 빨리 대학생이 되어 아무런 속박 없이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하지만 2020년 20살이 된 나는 꿈꿔왔던 새내기를 보내지 못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은 나의 대학교 낭만과 로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개강이 점차 연기되면서 나는 새 출발의 설렘과 기쁨도 누리지 못했다. 그렇게 나의 20살의 대학생활은 종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집에서 실시간 수업을 들으니 편하고, 수업도 녹화를 할 수 있어서 다시 공부하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좋았다. 하지만 점점 길어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나의 대학 생활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상실감으로 나의 기분은 우울해져갔다. 그렇게 우울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함께 등산이라도 가자며 ‘옥녀봉’으로 나를 이끌었다. 집에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산은 이제 상쾌함뿐만 아니라 편안함까지 선사하는 나만의 장소가 되었다.

옥녀봉은 대학생으로서의 첫 시험을 치르며 지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때로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휴식처가 되어주기도 했다. 영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영어 교사까지 꿈꾸게 된 나는 원하는 대로 영어교육과에 진학하였다. 하지만 새 학기가 되어 만나게 된, 어학연수 경험이 있거나 유창한 영어 실력을 지닌 동기들 사이에서 내 영어 실력은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였다. 이러한 생각이 지속되자 내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결국 나에게는 인생의 첫 슬럼프가 찾아왔다.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더디게 나아지는 내 영어 실력을 보면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옥녀봉에 가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함께 흠길, 돌길, 나무 계단들을 따라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비워졌다. 옥녀봉은 지치니 내 삶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숨이 가쁘게 산을 오르다가, 별로 힘들지 않게 내려오는 사람을 마주치면 ‘나도 빨리 내려가고 싶다.’ 라는 부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내려가는 그 사람들도 오르막길에서는 나처럼 힘들었을 것이다. 이 작은 산, 옥녀봉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듯 인생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게 찾아온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위로를 건넬 수 있다. 당장은 너무나도 힘든 이 시기 뒤에는 긴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 슬럼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뒤바뀐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오늘 힘들게 올라간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토론과글쓰기2 20분반 우수작

그림에서 얻는 성취, 행복

명리나

만화·애니메이션과

사람들이 가지는 행복은 여러 가지다. 금전적 충족으로 인한 행복, 가족이나 연인의 유대로 얻는 정신/감정의 행복, 5성급 호텔에서 먹은 음식으로 포만감을 가지는 행복, 무언가를 이뤄냄으로써 얻는 성취의 행복 등 여러 행복이 존재한다. 이 행복들 중에서 나는 성취감에 의한 행복을 말해보고자 한다.

성취감, 공부를 해서 문제를 맞히거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얻은 결과를 봤을 때 이걸 느낀다. 나는 이 행복을 그림을 그리거나 연습할 때 자주 마주한다. 중학교 3학년 무렵 나는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리다가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수업을 수강한지 한 달쯤 되어가는 날이었다. 학원 강사님이 내 그림에서 인체가 비올적으로 어긋난 부분을 처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수정하기보다 부정하기 바빴다. 그림 마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자, 한 장을 열심히 그려봐도 행복하기보다 계속 도망치는 느낌을 받았다. 한번은 인터넷 익명질문에 그림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여전히 지적당하는 부분이 있어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답답함을 강사님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았는데, ‘자신의 그림을 부정할수록 그리기만 싫고, 내가 원하는 건 그리기 힘들 거다.’ 라는 말을 들은 나는 일단 강사님이 내주기 시작한 그림연습과제를 꾸역꾸역 해나갔다. 그렇게 그림과제를 해간 지 석 달, 선하나 굵

는 것조차 맘에 들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그림이 잘만 그려졌다. 석 달 전에는 그림을 옆에 꺼내두는 것이 마냥 부끄러웠다면, 그때는 달랐다. 부족하고 못한 과거가 아닌,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고 눈에 띄게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 나의 발자취인 그림을 보고 성취감을 느꼈을 때 속으로 울컥하면서도 그 누구도 쉽게 설명 못할 행복을 느꼈다.

말하기엔 더 길지만 나에게 저런 경험은 언제나 있어 왔다. 그림이 아니더라도 밥을 혼자하거나, 어렵다고 느껴 못했던 인터넷 주문, 컴퓨터 수리기사님께 연락을 드린 일... 최근에 와서는 전공과목에서 처음 배운 3D모델링을 만들어보고, 만화를 구상하고 완성하는 와중에도 중학교 3학년 무렵에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을 느꼈다. 대수롭지 않은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고, 완성하고, 경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은 결코 고갈될 일이 없다.

바쁘고 어려워서, 귀찮고 싫증나서, 심적/금전적 여유가 없어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면, 성취감에 의한 행복에 도전해도 좋을 것이다. 이 행복은 사라지지 않으니 조바심 내지 말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 행복에 도전해 보자.

토론과글쓰기2 21분반 우수작

나의 행복은 지금의 나로부터

박세영

중국어중국학과

어떤 사람은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난 행복하지 않아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든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행복은 왜 골고루 배달되지 않는 걸까? 나는 사랑이 있으면 행복이 있다고 지금까지 여겨오면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의 고민과 얘기를 들어보면 사랑만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행복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행복을 위해 살까?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은 계산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행복을 계획해서 구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행복을 계획해서 쟁취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지금과는 다른 삶을 1년 가까이 보내면서 사회에서 치어 살던 때보다 집에서 나의 취미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미래의 끝도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이었다. 행복한 교사,

행복한 딸, 행복한 엄마, 행복한 손녀, 행복한 언니, 행복한 동생, 행복한 사람 결국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간을 절망으로 보내고 있다. 남들에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지금 절망적이고 행복이 내 삶에 없다면 내 미래에도 결코 행복이 없다. 나는 요즘 나의 행복을 위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의 내가 아닌 지금의 나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니 모든 일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모든 일에 대해 행복을 느낀다.

행복은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현재의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행복하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행복뿐만 아니라 사랑과 감사, 평화와 같은 좋은 감정들이 온 세상에 골고루 퍼져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면

선윤희

항공호텔관광경영학부

우리는 모두들 자신만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간다. 누군가에게는 그 가면이 웃는 모습일 수도, 또는 우는 모습일 수도, 화내는 모습일 수도 있다. 다들 각자 다른 가면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표정을 숨기는 것은 익숙해져버렸고, 나 또한 나의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해졌다. 내가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울고 싶을 때 울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했고, 또 남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항상 가면 뒤에서 나의 감정과 모습을 숨긴 채 살아왔던 나는, 어느 사소한 계기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약 2년 전, 내가 아직 고등학생이었을 시절이었다. 입학한 지 꽤 시간이 지나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새 학기의 걱정과 달리 나는 무척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학교 내에서 나에게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 나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소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나와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 소문에 대해 어느 정도 믿고 있는 눈치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점점 헛소문은 과장되어 갔다. 나는 점점 내 귀에 들려오는 헛소문들이 버티기 힘들어졌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져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면 그 소문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마주치게 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힘들어도 힘든 내색

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괜찮은 척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때, 평소 나와 친했던 친구가 말했다.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니까 애들이 더 그러는 거야” 라고. 정말 짧은 말 한마디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애써 소문을 외면하고 마주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과, 나의 힘든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직접 소문을 해명하려고 나서는 모습들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자 자신의 일도 아닌 것에 저렇게 발 벗고 나서주는데 왜 나는 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다. 그렇게 나는 수소문하여 소문의 중심지에 있던 아이들을 찾아 사과를 받아냈고 그 아이들에게 내 소문에 대해 직접 아니라고 하고 다니라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소문은 잠잠해지다가 점점 기억에서 잊혀갔다.

늘 가면 뒤에 숨기 급했던 나는 사소한 계기를 통해 숨기만 하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때와 장소를 가려 웃는 표정을,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남들 시선을 신경 쓰며 나를 소홀히 여기는 시간보다 나를 가꾸어주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나에게 훨씬 좋다는 점을 깨달았다. 마치 마스크를 쓰면 표정이 안보여 감정을 꾸며낼 수 있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 걸 알 듯이, 가면을 쓴 채로 흉내를 낸다고 해서 가면을 쓴 모습이 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된 나의 모습은 가면을 벗은 ‘나’ 이고, 이런 ‘나’ 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줄 수 있는 ‘나’ 를 사랑하고 싶다.

토론과글쓰기2 23분반 우수작

작은 행복에서 큰 행복까지

현지수

영어영문학과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친구들과 이 곳 저 곳 놀러 다니던 것, 학교에 나가서 수업 듣고 많은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던 것, 해외로 여행 갔던 것... 너무나도 많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하지 못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 또 올해는 대학 생활에 대한 환상을 품고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뿐이다. 대학도 못 가본 대학생만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학 신입생들이 공감할 것이다. 오티 한 번 빼고는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 올 해 학교를 딱 한 번 가봤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은 듣는다. 사실 아직도 대학생이 된 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그저 고등학생의 연장선인 것 같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던 일들도 못하게 되고 혼란스러웠다. 그렇지만 나에게게는 나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는 대학을 도피하듯이 온 것 같았다. 고3때 미대 입시를 준비하며 미대를 목표로 달려왔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있던 상태였고 결과는 좋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피하듯이 지금 대학에 추가모집 원서를 접수하고 오게 된 것 같다. 이게 맞는지 여러 번 생각해봤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대학을 목표로 달려왔을 뿐인데, 그뿐인 것이었다. 내가 행복해질 조건이 대학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장래희망이 확고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

워했다. 나도 행복한 줄 알고 있었다. 그저 직업만을 목표로 삼으니 그 꿈을 이루고 난 후에는 뭐가 나의 목표고 행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업이 아닌 나의 비전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 비전을 품고 그에 맞는 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 원하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와 있지만 이 시간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분명 얻는 것이 있다. 이후엔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로 잠시 멈춰진 것 같고 뒤쳐진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행복으로 시작해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행복까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앞으로의 비전을 잘 발견하고 그에 맞는 노력을 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길.

토론과글쓰기2 24분반 우수작

오늘을 살아갈 것

박서화
미술교육과

지난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항상 불행했고, 낙오자였다. 부모님의 강압적인 교육방식으로 또래보다 2~3년은 앞선 선행학습을 했던 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요구에 수긍했던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난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초등학교 6학년, 고작 13살 때 음식을 거부하면서 시작되었다. 삶에서 모든 것을 통제받으며 살아온 나에게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나의 몸이었다. 자학적인 생각과 우울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도 부모님의 노력과 꾸준한 상담으로 몸과 마음은 서서히 회복되었다. 몸이 회복하는 데는 3년이면 충분했지만, 마음은 7년이 지난 지금, 스무 살이 되어서야 완벽히 회복되었다.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했지만, 현재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작용했기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쁘게 피어있는 들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크기를 실감케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실패를 했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 마

음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행복해지기 위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 용기를 내어 행복을 위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때 부모님께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품어주셨더라면.’ 과거가 미치도록 후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내가 어쩔 수 없었던 과거의 상황 속에 현재를 대입하는 것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 앞에 나 자신을 구태여 자책하며 과거라는 철장 속에 가두어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아픔을 계기로,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행복에 대해 여러 번 곱씹고, 되뇌며 생각했다. 불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려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존재해야만 행복하다고 느꼈다. 미안할 상황이 아닌데도 사과를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던 지난날을 떠올려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의 중간지점을 찾아내려 애쓰며 연약한 내 원 안에 그 사람들을 두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더 행복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에 대해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완벽한 미래만을 추구하고 현재를 잃어버리고, 내 행복의 기준점을 타인에게 맞춘다면, 항상 타인과 비교당하며, 실수하고, 잘하지 못하는 나는 늘 불행할 것이다. 타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성공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내 모습에 직면하며 나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며 노력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나에게서 행복의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늘을 살아갈 것.’ 나만의 행복의 기준이다.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은 나를 또다시 불안하게 하고 여전히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기에. 일상 속의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닌, 햇살

이 따사로운 비치는 오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산책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길, 조금 더 자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

오소희

정보통신융합공학부

2020년 3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입학해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손꼽아 기다려온 대학생이 되어 너무 설레고 기뻐다. 숨 막힐 듯 힘들었던 입시제도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늘 꿈꿔오던 다양한 대학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에 나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이 느껴졌다.

고등학생 때 내가 생각하던 대학생의 모습은 강의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과 밖에 나가 맛있는 점심을 먹고, 수업 시작 전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도 하다 다시 수업을 듣고, 끝나면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대학생이 되고 내가 실제 내가 경험한 대학생활은 조금 많이 달랐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친구들의 얼굴을 잘 모르고, 공강이 없어 십 분 만에 밥을 먹고 수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과제를 할 때는 카페에 앉아서 음료 한 잔을 마시며 여유롭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상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제출 마감일까지 2-3일씩 컴퓨터에 앉아 밤을 새운다. 내가 꿈꿔오던 모습과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까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쯤 정말 기대하던 것 중 하나가 교내활동과 대외활동이었다.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교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기자단 등에 참여해오던 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을 보며 내가 대학생이 되면 저 행사에 나도 있었

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비록 대학생이 된 후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선정이 되지 않아 아쉽게 아직까지 대외활동에 크게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교내활동은 교외에서 진행하는 활동보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대학생활을 하며 도움이 될 만한 행사들을 쉽고 간편하게 신청해 활동할 수 있어서 다양한 서포터즈, 강연, 대회 등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에 참여하며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도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다.

대학생이 된 후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새롭고 설레기만 했다. 얼굴도 잘 모르는 동기들과 진행하는 비대면 수업도, 잠을 줄여가며 완성해나가는 과제도, 다양한 과와 학번인 동기들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참여한 많은 프로그램과 대회들도 하나같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코로나로 인해 내가 기대하던 대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쌓고 있는 기억들은 평생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수업 중 행복 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나의 행복’의 모습

김재현

정보통신융합공학부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만약 안다면 행복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말 자체로 긍정적인 단어이다. 하지만 저번 토론과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다른 각도의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느끼게 되었다.

2020년 11월 11일 토론과 글쓰기 수업 활동 중 ‘행복감’을 평가하기 위해 자신만의 설문지를 만들기 위하여 행복에 대한 설문 문항을 5가지 쓴 적이 있다. 자신이나 남에게 이 문항을 물어보아서 그 사람이 행복한 지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감’을 평가하기 위한 자신만의 설문지를 만드는 것이 그 활동의 목표였다. 행복에 대한 설문 문항을 쓰기 전 ‘우리는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쓰게 되어 있었다. 나도 행복 설문 문항을 쓰기 위하여 우리는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에 열심히 답을 썼고 그 답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서 행복한 표정을 보았을 때, 돈을 받았을 때, 여행을 가서 호강할 때’ 등 여러 가지 나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적었다. 또한 답을 토대로 나만의 설문 문항도 만들었는데, 나는 ‘집에 가는 길에 붕어빵과 어묵을 먹을 수 있는 여윌돈이 있는가?’,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평소에 많이 웃는가?’ 등의 긍정적이고, 만약

내가 여기에 ‘예’ 라고 대답을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질문을 적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내용은 사뭇 달랐다. 내 것을 쓰고 난 후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다 같이 결과물을 공유하였는데, 그 결과물 중 뜻밖의 결과물이 있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까? 보통의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단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읽어 보기 전까지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 설문지에는 긍정적인 내용의 질문도 많았지만 자신이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었다. 마치 그 질문은 굉장히 불행함을 0점, 굉장히 행복함을 10점이라고 했을 때 불행함과 행복의 사이 5점 정도에서 질문을 쓴 것이 아닌 2, 3점 부분에서 질문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했던 학생들도 우리는 보통 언제 행복을 느끼냐는 질문에 각자 자신이 행복을 느꼈던 기억을 떠올려 대답을 하였다. 따라서 나는 이 경우를 보며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특별한 경우에 행복을 느낄 때를 빼고는 평소의 삶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행복을 느낀다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각자의 ‘나의 행복’ 은 생각보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하는 각자가 소중한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보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가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적은 설문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현실의 나를 대입하여 질문을 쓴 것인데,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의 질문이 더 많으니 행복을 느끼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행복해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법륜 스님의 말처럼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물론 현실을 살면서 행복할 기회가 많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한 행복이 아닌 평소의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특별하게 굉장히 좋은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낸다거나 비싼 물건을 사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 아닌 과제를 다 했을 때 오는 편안함을 행복이라고 느끼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기 어렵다면 작은 행복을 만들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문구점 2,3천 원짜리 씨앗과 화분을 사서 키우고 매일매일 물과 사랑을 주고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행복이란 뭘까요?

신승준

영어교육과

우리는 분명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요인에는 사람마다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개 돈, 사랑, 가족, 직업적 성취 등을 그 요인으로 말하곤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행복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과 후의 행복의 요소 중 가장 큰 차이는 돈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학생 때에는 왠지 모를 속물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물질적 행복은 저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성인이 되자마자 와장창 깨졌습니다. 올해 초, 아버지가 큰 빛을 지시면서 어머니께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부모님께 손 벌리며 살지 말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1월에 성인이 된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놀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습니다. 제 또래들은 술집에서 성인임을 인증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때, 저는 그것을 맞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돈이 행복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맛벌이로 바쁘셨기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조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행복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녹색 아주머니’라는 교통 봉사를 부모님께서 해주시는데 저는 조부모님께서 해주셨고, 운동회와 같은 중요한 날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철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불행처럼 여겨왔던 것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또래 친구들은 모르는 많은 요리와 재료들을 알 수 있었고, 예절을 배우면서 바른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철이 없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던 조부모님과의 생활이 지금은 매우 감사하고 두 분이 아직 정정하시다는 것이 저에게 또 다른 행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과거에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었지만, 현재는 행복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조부모님과 생활’이 철이 없었을 때는 불행하다고 느꼈지만, 현재는 그 경험이 매우 감사하고 행복한 것처럼 행복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동안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행복이라는 보물을 찾기 위해 인생이라는 여정을 열심히 걸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의 행복

김은서

만화 · 애니메이션과

나는 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림이 좋아 그림을 그렸으며, 입시를 실패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보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이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는 젊고 빛날 나이를 허송세월로 보내왔을 것이라 여길 것이며, 나 또한 그런 시선과 스스로의 자괴감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낸 사람은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남들 가는 길에서 조금 틀어졌다고 틀린 삶이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 행복이 있다는 걸 말이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인생은 자연스레 어찌 어찌 흘러간다고 믿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전환점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굴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나의 인생과 앞길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꽤나 늦게 깨달았다. 미성년자로서, 학생으로서 나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든 것이 시간이 가며 내가 움직여서 바뀌어간다고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보였고 동시에 남들보다 더 버겁게 느끼고 있었다. 대신 그런 생각 덕분에 나쁘지 않은 점도 있었다. 남 탓을 하지 않았고 중간중간 취미생활 같은 숨을 쉴 공간을 꼼꼼히 만들어 둔 것이었다. 젊기에 열심히 뛰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만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는 취미는 정말 중요했다.

그렇지만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림이 좋아서 입한 입시는 나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시도를 생각하기 전에 실패를 먼저 염려하고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늘 누워 지냈다. 와중에 뒤처지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 가족도 바깥사람도 접하기 무서웠다. 억지로 남을 만나지 않으려 하니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 있는 생활을 반복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무더질 수 있는 나의 생활에 다시 불씨를 띄워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림이었다. 하는 게 없고 해야 하는 게 없다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능했다. 시도해 보지 않았던 무모한 화면을 그렸고,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리게 된 기회가 온 것이다. 도전은 여전히 두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니 나를 바라보고 뒤에서 밀어주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고, 조금 이나마 용기가 생겼다. 이제는 정말 나 스스로 발을 디뎌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다시 시작한 도전은 나를 가슴 뛰게 만들었다. 일 년을 다시 쓴다는 게 쉽지는 않았다. 나는 눈에 떨 정도는 아니지만 전과는 달랐다. “그렇게 못할 짓은 아닌데?” 싶었다. 꽤나 재미있었다.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이리 벅차고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물론 늘 즐거운 건 아녘다. 말이 좋아 다시 도전하는 거지, 남들이 보기엔 그저 삼수생이 아니던가. 입시가 즐거울 순 없다. 하지만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게 나에게 힘이 되었다. 다시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졌다. 주변 사람과 웃을 수 있었다.

이렇게 뒤돌아보니, 나는 입시에 성공했고 그래서 지금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학을 가지 못했어도 나는 다시 무언가를 시도했을 거고 어찌되든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이내 행복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남들 가는 길과 약간 다른 길을 걸었다. 나는 이 길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들과 다른 삶이 틀린 삶

은 아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다. 나름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을 가졌고, 쉬이 만나지 못할 인연도 만났다. 삶의 모든 것에는 소중함과 행복이 은은하게 깃들여 있다.

불평

안은정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2020년 초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의 대학 입시가 끝났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하다.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바빠도 항상 친구들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할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대학생이 된 지금은 과제 하나 하기가 너무 벅차다. 분명 고등학생 때 배운 것인데도 기억해 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아마 긴 휴식기로 나태해진 것 같다. 아니면 쉬는 동안 기대한 대학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나는 대학생인 언니를 보며 대학생이 되면 소소하게 하고 싶은 일이 꽤 있었다. 대학 축제도 체험해 보고 싶었고 과잠이란 것도 맞춰보고 싶었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MT도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과잠도, MT도 축제도 아무것도 못 했다. 혼자 시간표를 짜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과제도 너무 많았다. ‘내 기대감과 로망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던 걸까?’ 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해봤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 하면 내 자존감만 깎아 내리는 것이니 그냥 운이 나쁘다고만 표현한다.

가끔 ‘내 대학 생활이 시작된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제껏 내가 생각한 대학 생활은 모두 대학교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며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 그런 생활만을 생각했는데 나는 수업도, 과제도 모두 집에서 해결했다. 결국 제일 편해야 하는 장소인 집이 학교가 된 셈이다. 가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현재의 대학 생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

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어 나에겐 남는 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즐거움뿐이었다.

그렇게 내 1학년 1학기 대학 생활과 방학이 흐지부지 지나가고 금세 2학기가 시작되었다. 여전히 시간표를 짜는 것은 어려웠고 수업과 과제에 적응하기도 힘들었다. 마치 첫 해외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시차 적응을 하는 기분이었다. 2학기 때는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없었다. 집에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의 연속이었다.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대면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했을 때는 학교에 가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다. 그렇게 가기 싫어 가끔 피병을 부리곤 했던 학교인데 나도 내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

비록 대학 생활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가령 조별과제를 할 때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든가, 과제를 밀리지 않고 한다든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긴 휴식으로 나태해진 나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도 학교를 안가다 보니 SNS에서 본 신조어인 “헌내기”가 되는 건 아닐까 싶다. 21학번 후배들과 같이 입학식을 하고 학교 건물 구조를 익히는 시간도 갖는 건 아닐까하는 우스운 상상도 가끔 하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배행세를 하기 힘들다는 게 가장 단점이 아닐까 싶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번에 들어오는 전국의 21학번들은 이 시국에도 힘들게 학교에 가 공부를 해서 들어온 만큼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김요셉
신학과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모두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무엇이 자신에게 행복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자신이 불행하다고도 말한다. 가볍게 말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도 모두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고 자란 사람이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한다.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소중한 행복 중 하나이다. 흔히 “소확행”이라고 말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이다. 일상 속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하는 등의 거창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기쁨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익숙해져서 기쁨에 무뎠진 사람들은 소확행을 얻지 못한다. 쉽게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일상 속에서의 소중한 일들에 대해서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돈이 많은 것은 소중한 행복 중 하나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배운다. 그러나 재력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 이유는 돈이 많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기회가 주어지며, 여유 있게 원하는 대로 놀 수도 있다. 돈이 없어서 사람도 못 만나고 살아가며, 매일 매일 돈 걱정인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다.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몸이 건강한 것은 소중한 행복 중 하나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만 봐도 전염병의 위험성을 가까이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몸이 기형이거나, 태어날 때부터 질병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암걸린다” 라는 말을 쉽게 쓰고 살아가는데 말은 정말 씨가 되기에 이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며,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모르는 것이다. 건강한 육신으로, 정신으로 태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제일 큰 행복이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

소확행도, 재력도, 건강도 모두 행복 중 하나이지만 이것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은 무엇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주며 행복하게 해주는지 알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그 삶이 의미 있어지기 때문이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라면 쉽게 불만을 내뱉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만족해야 한다. 우리 모두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전소희
영어교육과

우리는 고등학교 때 입시원서를 넣으면서 내가 어디 학과에 가면 좋을지,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나 또한 그랬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좋아하는 행위를 시도하면 그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해야 행복이 느껴질까?

나는 말 그대로 영어가 좋아서 영어교육과에 오게 되었다. 여기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고등학교의 내신 등급은 1-9등급까지 나눌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의 나는 7등급의 하위권 학생이었다. 그 때 당시에는 내가 뭘 잘 하는지도 몰랐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몰랐기에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깨우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막바지에, 영어 과목 수행평가로 본문의 일부를 발표하는 숙제가 있었다. 당시 공부를 못 했었던 나는 영어를 잘 할 리가 없었다. 적어도 내가 이 분야에 대해 뭘 알아야 발표를 하곤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오히려 무지하니 더 어려웠다. 하지만 수행평가만큼은 해야 했기 때문에 온갖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발표 시간은 다가왔다.

발표는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런데 발표를 마치고 나니, 반 아이들의 표

정이 요상했다. 그래서 나는 문득 내가 발표에 무슨 실수라도 있었는지 되새길 찰나에, 맨 앞에 앉아있던 친구가 질문이 있다며 내게 손을 들었다. 그래서 질문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의아했다. 나는 영어를 잘 하지 못 하는데, 아니 그냥 못 하는 학생인데. 심지어 영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들을 못 하는데. 그래서 하교 후 집에 와서는 한참을 공상하였다. 내가 영어를 잘 하지 못 하는데 왜 오늘 발표를 하고 나니 영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지. 이후 깨달았다. 나는 발표하는 것을 좋아했다. 생각해보니 나는 발표 당시에도 대본이 없이 발표를 진행하였고, 반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발표를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그게 좋았는지, 내가 영어를 잘 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이 계기를 통해, 발표란 나에게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하여 청자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것’ 이라고 인식이 되었고, 발표를 잘하는 나에게 이와 잘 맞는 직업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교육자의 길이 너무 걷고 싶어 이를 택했다. 내가 영어교육과에 온 이유도 아마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발표가 가장 큰 몫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2년 동안 미친 듯이 성적을 향상시켰다. 사범대에 입학하려 하면 7등급은 물론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시험기간만 되면 살이 5kg씩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주변 선생님께서도 그저 날 하위권 학생으로만 알고 계시다 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함께 걱정해주시며 고민을 해결해주시려는 모습이 보였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나 또한 그들처럼 교사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

그렇게 나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7등급의 성적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성적 3등급을 마지막으로 나는 사범대 입학에 성공하였다. 모든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이 함께 축하해주었다. 나는 아직도 ‘네가 정말 사범대에 갈 수 있을지 몰랐어.’ 라는 얘기만 들어도 기쁘다. 왜냐면 그들은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바닥에 있었는지, 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지를 알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아직까지 영어라는 것을 사랑한다. 한글로 되어있는 장문의 글은 그냥 빠르게 읽으면 그만이지만, 영어로 되어있는 장문의 글은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뽑아내어 뜻을 찾아 독해하는 그런 퀴즈 같은 맛이 있다. 어쩌면 나에게 꿈을 갖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왕 늦게 시작한 영어,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남들처럼 되어야하기 때문에 수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내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토론과글쓰기2 32분반 우수작

사소한 일상도 행복이다

김예진

유아교육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존재한다. 단지 사람들마다 느끼는 행복의 순간이 다르고 행복의 크기도 다를 뿐이다. 하지만 언제 행복을 느끼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다들 깊은 고민을 해봐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한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앞으로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할지 생각해보았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조그맣게 나온다.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었을 때 나오는 행복, 친구와 놀러갔을 때 행복, 연인과 함께 놀러가서 사진을 찍는 순간에서 나오는 행복 등, 내가 즐거워하고 웃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던 것이다. 행복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보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 행복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들 것이다. 때문에 나는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이 있는 작은 행복부터 찾아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느꼈던 가장 사소하지만 가장 소중한 행복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다. 항상 집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사소한 시간들이지만 온전히 나 있는 그대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다.

원하는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노력 중인 것도 있다. 바로 내 꿈인 ‘유치원 교사’ 라는 꿈을 이뤄 행복을 발견하고 싶은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행복,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요!’ 할 때 그 행복은 정말 클 것이다. 나는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 전공 공부도 하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치원 안에서 행복한 나를 발견하고 싶다.

나의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 소중한 가족, 친구, 연인들이 나에게 행복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 앞으로 얻고 싶은 행복도 소중한 제자들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가장 웃는 순간과 편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가 보여 지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이다. 나는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히 여기고 간직하고 싶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행복의 순간이었으면 좋겠다. 나만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웃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나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들 한 번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했는지 떠올려보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사소하지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갖는 이 시간들이 행복하다.

토론과글쓰기2 33분반 우수작

존재에 있어 살아 숨 쉰다는 것

김예원
피아노과

나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소울 메이트가 존재한다. 꼭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는 이유가 있나? 난 소울 메이트를 나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온 우리 집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말한다.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살아 있기에 감사하고 살아 숨 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라고. 내 곁에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소중함인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왜 꼭 지나고 나서야 잃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을까. 지나간 것에 후회하지 않고 그때 더 온전히 잘해주고 사랑해 줬다면 어땠을까? 그러나 인간은 모른다. 나 역시 그렇다. 생명의 소중함과 관심과 사랑의 소중함을. 언제나 내 곁에서 묵묵히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나의 강아지한테 항상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요즘 따라 마음 한편이 아리다. 너무 늙어서일까, 나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일까.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신기하지 않니? 애는 인형이 아니라 정말 살아 숨 쉬잖아. 우리랑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고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잖아. 우리의 삶에 애가 들어와 함께 산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하지 않니?” 라고 가끔씩 말씀하신다. 나는 뭐 이게 별거라고 남들도 다 키우고, 동물이니까 살아 숨 쉬며, 개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말하나 싶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

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저 조그마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혹여나 어떻게 될까 조심스레 아끼고 보살펴주며 그저 동물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가족으로 한 생명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에 아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펴주고 아껴준 것이다.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며 현재 뭐가 더 소중한 것인지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고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 역시 그렇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며 놓치는 것은 뭘까? 혹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강아지를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상 생각하며 되돌아보며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아채지 못하는 게 반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소중함을 깨닫고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사람이 아닌 동물도 사람과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에 큰 매력을 느끼며 신기하게 생각한다. 서로의 존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다른 시선으로 다가왔다. 다 같은 강아지인 줄 알고, 똑같은 포장의 선물인 줄 알고 풀어봤지만, 속 내부는 전혀 달랐고 그 속의 진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선물이라는 의미 그대로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왔다.

언제나 이 소중함과 존재의 가치를 잊지 않으며 주변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다양한 취미는 나의 행복

박창순

미생물생명공학과

취미를 가지는 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취미를 즐기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아니면 취미를 가져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완수하는 것으로 성취감이라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취미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관심은 많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나의 취미를 찾았다. 지금부터 나의 취미와 취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겠다.

먼저 음악 감상이다. 음악 감상은 많은 사람이 취미로 가지고 있는 흔한 취미 중 하나이다. 나는 나만의 음악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음악을 전체적으로 듣고 나서 음악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한다. 강렬한 박자감을 만들어주는 드럼부터 시작해서 음악의 기반을 다지고 무게를 잡아주는 베이스, 강렬한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컬까지 하나하나 집중해서 듣는다. 음악을 집중하다 보면 내가 마치 그 무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까지 한다. 나는 음악을 듣기만 해도 행복하다.

다음으로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만들기를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는 레고를 좋아했고, 중학교에서는 목공을, 고등학교 때는 요리를 좋아했다. 지금은 코딩하는 것이 즐겁다. 코딩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

도록 해준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행동반경이 줄어들어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나는 컴퓨터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관심이 많이 생겼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코딩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코딩을 공부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는 점점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도 행복하지만 만들기가 끝나고 완성품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가져와 준다.

마지막으로 천체관측이다. 천체관측이라고 말은 하지만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이 아니라 쌍안경이나 눈으로 별을 본다. 별자리의 이름이나 별의 이름을 외우고, 외운 별자리나 별을 밤하늘에서 찾는 것은 큰 행복을 선사해준다. 넓은 우주를 관찰하고 있으면 나 자신이 한없이 작음을 깨닫고 겸손해지기까지 한다. 그저 밤하늘을 보면서 명을 때려도 행복해진다.

나는 다양한 취미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취미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나는 200%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내 취미 중 하나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자고 하면 나는 천체관측을 추천하고 싶다. 드넓은 우주를 보고만 있어도 행복감을 얻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토론과글쓰기2 35분반 우수작

행복을 통해 성장하는 나

김해인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금,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했던 거 같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갈 때 즈음,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인해 행복을 느낀다. 사랑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행동이 없을 것이다. 공상에 잠겨 언뜻 생각나는 그 사람의 미소에도 하루가 행복하며 한낱 굴러다니는 낙엽마저도 여행을 가고 있는 것과 같으며 나의 상상을 펼치게 된다.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움을 선사할 만큼의 여유 또한 생기게 된다. 사랑의 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엄청난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종일 강의를 듣고 바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몸을 더 소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산책한다. 산책하면서 나는 휴대폰과 노트북만 보던 나의 시야를 넓혀 나무도 보고 낙엽도 본다. 별거 아

닌 행동일지 몰라도 이럴 때만은 진정한 ‘힐링’을 느낀다. 이 시간은 자연이 나에게 주는 선물과도 생각해 그 시간은 온전히 나의 모든 몸의 감각을 활용해 즐긴다.

세 번째로 걱정 줄이기이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조급함을 느꼈다. 왜 나는 이렇게 매번 뒤처지느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럴수록 스트레스만 받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계획을 세워 남들의 잣대에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만들었다. 남들이 두세 발짝 앞서나가도 나는 나만의 길을 곳곳이 걸어 나가는 여유를 가지게 되며 또한 자존감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행동일 수도, 별거 아닌 행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며 평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 나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주고받는 마음,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통해 나의 행복을 찾았다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론과글쓰기2 36분반 우수작

나의 소소한 행복

최은아

중국어중국학과

나의 행복은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온다.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소한 곳에서 행복은 늘 찾아온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행복은 참 단순하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별거 없는 게 바로 행복이다.

내 첫 번째 행복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찾아온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씹 꼭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떠오를 때면 난 행복해진다. 그렇다고 이 음식을 못 먹었다고 불행해지진 않는다. 나는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내가 먹진 못해도 남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괜히 행복해지고 허기를 대신 채워주는 기분이다. 내 소소한 행복은 어쩌면 쓸데없지만 이러한 곳에서 찾아온다.

내 두 번째 행복은 친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이다. 친구들과끼리 예쁜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거리를 돌아다닐 때 늘 이야기가 따라온다. 그 이야기에서부터 다가오는 행복이 나는 참 좋은 것 같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땐 딱히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처음에는 한 주제에 관해 얘기하면서도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또 다른 이야깃거리가 생겨 나온다. 별거 없는 내용이지만 친구들과 24시간 내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 정말 소소하면서 값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내 세 번째 행복은 추억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가족들과 있을 때이다.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거나 같이 텔레비전을 봐도 나는 늘 행복하다.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의문점이 든다면 혼자였을 때를 생각하면 쉽다. 혼자 여행을 가도 당연히 좋고 행복하겠지만,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덕에 작았던 추억이 더 커질 수 있었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위와 같이 이런 사소한 행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자. 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행복이다. 모든 것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행복도 놓치지 말고 계속 기억해 내면서 행복을 점점 쌓아뒀으면 한다. 그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다.

토론과글쓰기2 37분반 우수작

모든 것에 감사해지는 순간

김진주

국제무역물류학과

나는 이전부터 행복을 끊임없이 갈망해왔다.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래 이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꼭 있어야 하는 서사일 거야 불안해하지 말자’ 라면서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 지나가겠지를 내 마음 속으로 외치다 보면 정말 지나가있다. ‘내가 한 달 전에 한 고민이 뭐였지?’ 하고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듯이 고민은 이미 저 멀리 떠나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가. 요즘 인생에 관한 글을 보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다. “나를 마주하는 일이 사실 추잡하고 생각보다 더 큰 용기와 솔직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고통 없이 좋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힘들다면, 지금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나를 마주하는 일이 어찌면 추잡스러울 수 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 또한 들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먹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예쁜 옷을 사서 행복을 느낀다.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거대한 행복을 만든다. 나는 그렇다. 그러니 소소한 행복들을 맘껏 느끼며 살아간다.

나는 요즘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쓴다. 예전에는 감사 일기는커녕 그냥 일기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를 좀 기록하고 싶고 감사 일기를

쓰는 게 도움이 된대서 쓰기 시작했다. 무엇을 적을까 생각하다 보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져서 행복감이 넘치다 못해 흐르는 지경에 이르는 느낌이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나의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쉽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모두가 잘 살기 위해 돕고 기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행복해져야지’, ‘행복을 찾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행복’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착하는 순간 내가 나를 행복이라는 끈으로 얽어맬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이 마냥 싫고 만나던 사람들만 만날 때가 있었다. 그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돼야 다음 약속을 잡고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가 통하면 그만이고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소소한 대화들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내가 제일 어렵게 생각해온 지도 모른다. 소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다 같이 있을 때의 그 시너지는 나를 더욱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지 않고 그 만남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다. 남이 더 잘됐다고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하나다. 내가 남들 잘되지 말라고 부정적인 기운만 불어넣고 남들의 실패만 보고 있다면 나까지 성장할 수가 없다. 남이 잘되면 그 기운이 나까지 온다. 그러니 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 전혀 초조해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가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매일 거울을 보며 나를 사랑해준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런가를 생각하면 끝없는 불행의 꼬리는 끝까지 늘어지며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선택을 존중한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은 저 멀리 보낸다. 과거의 내 삶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남은 내 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할 게 아닌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한다. 얼마나 더 게을러졌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어제의 나보다 발전하는 게 현재의 목표다. 나는 한때 어질러진 방을 극도로 싫어해 무조건 정리를 해야 하는 강박증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피곤한 나를 잠 못 자게 만들었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적당한 조잡함을 사랑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나를 사랑해준다. 모두가 자신을 존중해주며 사랑하길 바란다. 그럼 멀리 있을 것만 같던 행복도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분명 온다.

빌어먹을 마스크

윤도겸
TV 영화학부

2020년은 역대 최악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긴 한 걸까? 의문점이 많이 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후반에 시작된 코로나는 2020년 12월이 다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2020년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가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는 점이다. 이유가 뭘까? 흔히 말하는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방 수칙은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구다.

마스크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2020년 초에 다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하듯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는 것을 기다려 본 적이 있지 않은가? 약국에서 평범하게 구매할 수 있던 마스크가 하루에 2개 이상 못 사는 레어 아이템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마스크 사재기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크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KF 넘버까지. 이제 세세하게 따지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알아보고 구매해서 착용하고 밖으로 나간다.

사람들이 왜 사재기를 하고 줄을 서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려고 노력

을 했을까? 마스크가 가지고 있는 예방 효력은 대단하다. 코로나 확진자와 1시간 동안 함께 있던 접촉자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나눴는데 코로나 확진이 안 되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또한 코로나는 사람들의 재채기, 기침으로 바이러스가 전해지는 형태라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호흡기를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배출하는 바이러스 또한 막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마스크도 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계속 만지거나 착용 시 코를 가리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코 위로 올리고 마스크를 많이 만지지 않고 손을 많이 씻는 행동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인해 코로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또 하루를 시작한다.

대학 생활 로망은 잠깐 보류

서재성

국제무역물류학과

나의 대학 생활 로망은 중학교 3학년 때, N 포털 사이트의 웹툰을 즐겨 보게 되면서 생기게 되었다. 중학교와는 많은 것이 달라 보였던 대학 생활은 나에게 로망을 심겨 주었다. 그리고 그 로망은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은 채 보류되고 말았다.

2020년 2월, 그때까지는 몰랐었다. 대학 로망에 설레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 정들었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 술자리 단골 토크 주제는 단연 대학생활이었다. 자신이 가는 대학교 부근에 자취한다거나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등 다들 대학 생활을 준비하며 그리고 오랜 시간 못 볼 수도 어쩌면 평생 볼 수 없을 수도 있는 송별회 같은 모임이 되어갔고 그렇게 2월을 보내게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2월 18일, 대구에서 한 종교단체 신도인 31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나뿐만 아니라 대학교 새내기라는 모든 대학 신입생들의 칭호가 희미하게 변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대구 지역의 대학교 신입생들에게만 동정을 느끼고 있었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온 후 하루에 한두 명 수준의 증가 추세는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로 인해 급변하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대구 확진자와 전국으로 퍼져버린 코로나는 결국 대학교 입학식을 연기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학교 갈 마음에 가슴이 매우 설렘다. 내가 사

는 지역은 코로나도 재미가 없을 거라 느꼈는지 전국에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한 명도 나오지 않았었고, 나와 친구들은 딱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경각심도 심각성도 비교적 가지지 못했었다. 2월 초에 나누었던 마지막 인사를 뒤로 한 채, 계속되는 입학 연기와 비대면 수업 기간에 나는 친구들과 이번이 정말 마지막 만남일 거라는 마지막 인사를 다섯 번은 더 나누게 되었고, 그렇게 1학기가 끝이 났다.

2학기는 이미 전국으로 심하게 퍼져버린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많은 확진자 증가 추세를 뿔내며 나에게 “너 대학 못가~” 약 올리고 있었다. 목원대학교는 대면과 비대면을 선택할 수 있는 LIVE 수업을 했지만, 대전과 거리가 너무 먼 본가와 대전도 위험하다며 기숙사 역시 반대하신 부모님에 의해 나는 여전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종강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엔 아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게 될 나는 이제 스물세 살의 나에게 대학 생활 로망을 넘기려고 한다. 스무 살에 즐기지 못했던 나의 대학 신입 생활을 스무 세 살이라는 나이에 즐기기에 늦을 수도 있다. 23학번 후배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강의실을 찾아가는 20학번의 생활을, 후배들이 물어봐도 [글쎄요?] 하며 같이 물어보고 다닐 나의 대학 생활을, 가끔 학식도 먹어보고 대학가의 맛집들을 찾아도 가며, 선 후배들과 함께 술자리도 가질 나의 대학 로망을. 남겨두고 가긴 서글프지만 잘 부탁한다. 스물세 살의 나.

“괜찮아, 대학생은 아직 아기지 뭐.”

박유민
국어교육과

5, 4, 3, 2, 1... 모든 01년생이 기다려왔을 2020년 1월 1일 새벽 12시 나는 파리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친구와 함께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20살을 기념하여 배낭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다. 여행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파리, 스위스, 독일의 일정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별문제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나라의 그 누구보다 완벽한 20살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다. 다른 친구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해외 배낭여행,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면 달리는 나를 부러워하는 댓글들, 이것들은 나를 점점 착각에 빠지게 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이젠 더는 나를 간섭하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선생님도 주변에 없었다. 대신 모두 나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들만 전해주는 사람들만 존재했다. 이젠 나도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술과 담배를 살 수도, 운전할 수도, 부모님과 함께 가지 않아도 여행을 갈 수도 있었다.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러나 3월이 되어 학교에 입학해 보니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과에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나에겐 전공과목 시간표만 존재할 뿐 처음 스스로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적절한 회의감을 느꼈다.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뭐지..?” 운동선수 생활을 그만

두고 남들보다 늦게 공부를 시작한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이 짜놓은 커리큘럼에 따라서만 공부하는 법을 알았지 내가 스스로 계획을 짜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이 짜놓은 내 인생에 내가 맞춰가고 있었구나.” 한동안 이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를 돌아보게 됐다. 마치 거짓 없이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비춰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있는지 알게 됐다. 자존감이 높고 자기만족을 잘한다는 생각은 자만심 높고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내게 돌아오니 혼란스러웠다.

이럴 때마다 나는 항상 정답과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은사님을 찾아간다. 찾아뵙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니 돌아오는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괜찮아, 대학생은 아직 아가지 뭐.” “아기..?” 20살이 되고서 아니, 20살이 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나는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멧쩍은 웃음만 지었지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갔다. “아기.. 아기면 내 인생을 새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20살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인 것과 같은, 내가 드디어 어른이 된 것 같은 것들은 모두 내 착각이었다. 다만 나는 이제 아기 중에서도 스스로 걸음마를 배워 내 갈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아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닌 모든 대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이제 걸음마를 다 배웠으니 우리 스스로 걸어 볼까요?”

마스크 뒤에 미소

조은필

도자디자인학과

초·중·고 교육과정을 거쳐 갓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스무 살이고, 사람들은 이들을 ‘새내기’ 라고 부른다. 새내기 여대생들은 새내기 메이크업, 새내기 룩과 같이 한껏 자신을 꾸미는데 집중한다. ‘푹푹함’, ‘젊음’ 같은 밝고 싱그러운 얼굴로 자유롭게 캠퍼스를 거닌다. 그러나 이러한 새내기 여대생의 일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에 얼굴을 가리게 되면서 산산조각 나 버렸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지금 마스크 뒤에 얼굴을 숨기고 아주 편히 안도하고 있다.

어릴 때 값이 비싸서 하지 못한 치아 교정은 지금까지 콤플렉스이다. 남들 앞에서 웃을 때면 치아가 드러나는 게 싫어 매번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이 습관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된 뒤로 나 역시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입을 가려야 한다는 강박 없이 아주 오랜만에 활짝 웃을 수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종종 다른 사람들이 무신경하게 던지는 “어? 너 치아가 왜 그래? 이~~해봐”, “교정 왜 안 했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듣다 보니 마음이 점점 움츠러지고 지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뒤에 숨어 웃을 때 찾아오는 안정감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기쁨이었다. 누군가에겐 답답한 구속일 마스크가 나한테는 갑옷이고 요새가 된다니 재

미있는 일이다. 누군가의 불편함이 나에게 입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 위로 낀 안경에 김이 서릴 만큼 크게 웃는 방법이 된다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 행복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각기 다른 데서 오는가 보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나는 남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일이 적어졌다. 남들이 ‘이렇다’ 해도 나는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그동안 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해 왔는지 모르겠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한없이 깎아내렸던 것을 후회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이후로 재미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나를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자신감을 의외의 소득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안에서 입을 벌리고 맘껏 웃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오면 나도 마스크를 벗고 못생겼지만 예쁜 하얀 치아를 드러내 활짝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순간이 기다려진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주연
신학과

이번에 백일장의 주제 중 하나가 ‘나의 행복’이다. 주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이 나는 평소에는 그때 그때 감정에 충실했지, 어떤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음을 깨닫고 적잖이 놀랐다. 백일장을 쓰는 참에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는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마다 복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르고, 각자가 가진 만족의 정도도 다르다. 즉, 행복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것이다. 나는 행복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본인이 세운 기준을 따라간다고 나만의 정의를 내렸다.

나는 어떤 때 행복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소소하다. 남들에게 내 행동에 대해 칭찬을 받았을 때 행복하다고 느꼈다. 내 노력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 행복은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슬프다고도 느껴진다. 남이 인정을 해줘야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다니. 스스로 매기는 가치가 너무 박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것 외에 행복하다고 느낀 순간을 찾아봐도 마땅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

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반대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은 언제인지 생각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간단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상황과 정반대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됐다. 나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가치 없다 여길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하지만 나는 조금 충격을 먹었다. 행복한 이유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둘 다 타인에게서 찾고 있었다.

나의 행복에 대한 성찰의 결론은 그동안 내 행복의 여부는 타인으로 인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타인이 인정해줘야 행복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한 삶을 살았다. 자기 자신을 향한 애정이 부족함을 여실히 느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낙원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 말을 행복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 말처럼 나도 나만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나를 스스로 아껴줘서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유학생 생활

응웬티디에우마이
항공호텔관광경영학부

세월이 쏜살같다. 내가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 다 되어 버렸다. 목원대학교에 처음 온 날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때는 12월이었다. 날씨가 아주 추운 데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있었다. 이렇게 나의 유학생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힘든 것이 참 많았다. 문화, 법률 등은 모두 나한테 새로워서 바로 적응할 수 없었다. 특히 의사소통, 예전에 내가 썼던 언어가 아닌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돼서 참 힘들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학연수를 수료했다. 이제 나는 한국인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이 있고 그것은 지금 더 이상 나를 막을 수 없다. 혼자 여행 가든지, 병원이나 은행에 가든지 모든 것이 나한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나는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동안 한국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만나게 돼서 참 재미있다.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들이나 외국인 유학생 활동 덕분에 나의 대학 생활이 더욱 의미 있어졌다. 게다가 학교 교수님들도 우리 외국 학생들을 잘 챙겨 주시고 수업 시간 때 우리 의견도 잘 받아 주시고, 수업 내용도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빨리 학습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해 주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다.

그러나 올해는 학교에 못 갔다. 코로나19 바람에 일 년 내내 학교에 못

가는 데다가 친구들도 못 만나고 모든 활동들도 취소돼서 섭섭했다. 학교도 평소처럼 활기차지 않으며 학습 분위기도 들지 않은 느낌이 든다. 나도 매일 화면을 통해 교수님 만나고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심심하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무종교인이라서 채플 시간 때 많이 즐겼다. 하지만 요즘은 채플이라도 직접 가서 듣고 싶고 채플 시작하기 전에 불러 주는 노래가 많이 그리워진다. 이런 슬픈 상황이 지금 바로 끝났으면 좋겠다. 학교 나가고 싶고 학교 축제도 참가하고 싶다.

나는 대학교 다니는 목적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뿐이 아니다. 나는 해외에 나와 공부하는데 그거만 원하지는 않는다. 미래는 물론 중요하지만 반면에 현재도 중요하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공부도 중요하고 생활 만족도 소중하다. 공부와 놀기의 밸런스,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즐기고 싶다.

행복의 끊는점

김예진
미술교육과

‘가장’ 혹은 ‘제일’ 이란 단어를 가진 물음에 고민 않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자신의 취향이 확고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대학교에 진학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언젠가 ‘제일’ 좋아하는 것 세 가지만 떠올려보라는 질문을 했다. 스웨터와 손뜨개 양말, 내 보물 곰 인형, 수조 속 파란빛을 유영하는 해파리,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처음으로 키운 꽃 기린 화분 그리고 일기.

열 손가락은 족히 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만 꼽으라니,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썩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덜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았고 나의 행복이 ‘가장’ 좋아하는 세 가지에 국한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덜 좋아하는 거 대신, 좋아하는 것 중 좀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반드시 세 개가 아녀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다.

사람은 좋아하는 게 있어야 한다.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좋아한다는 감정까지도 사람을 어디로든 데려다 놓는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쉬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성숙함이라 여겼던 시절에는 무언가 많이 좋아하는 것은 유아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할 때, 몸이 지쳐 손끝마저 힘이 들어가지 않을 때,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이 팽창과 수축을 수없이 반복할 때 나의

시선이 닿는 곳곳 좋아하는 것들이 존재함에 안도하고 버텨낼 수 있었다.

부드럽고 편한 옷을 입고 책을 읽는 시간이, 일기장에 들어가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길거리를 노랗게 물들인 플라타너스 잎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사소하고 잔잔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굳이 힘쓰지 않아도 주변의 소소한 존재들이 오늘을 잘 지내게 해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99 ° C의 물을 끓게 하는 것은 마지막 1 ° C” 김연아 선수가 한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았다. 행복의 기준이 높았을 때는 행복해지고 싶어 무던히도 애썼다. 99도까지 쌓아 올린 불행 끝에 있는 100도의 뜨거움이 나의 유일무이한 행복이라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행복은 30도 정도면 충분하다.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비록 미적지근한 온도이지만 언제든 끓을 수 있다. 행복의 끓는점을 낮춰 보는 게 어떨까. 누군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다.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최린
경찰법학과

우리는 어쩌면 갑갑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는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돈을 벌어 살아가고 누구는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공부하며 살아간다. 원하지 않는 것들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다. 하지만 작은 옷도 큰 몸을 구겨 넣고 시간이 지나면 숨 쉴 틈이 생기듯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삶에도 숨 쉴 틈이 생기는 법이다. 당신을 숨 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년쯤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맛있는 디저트와 커피, 가끔 받는 네일아트 혹은 가끔 길가다 사는 몇 천 원짜리 물건들이 많은 이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다. 나에게 그런 것은 무엇일까. 가끔 보는 좋은 영화 한 편? 좋아하는 말이 가득 담긴 시집? 이런 생각을 하다 나는 억울해졌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작은 행복에 만족하게 되었는지. 팍팍한 세상이 우리에게 작은 행복이라도 만족하라고 명령하는 듯했다.

과거의 나는 행복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미친 듯이 소확행을 찾았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음식과 일들은 언젠간 질렸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큰 상처들을 줄 때도 있다. 왜 세상은 내가 쉽게 행복하게 놔두지 않는지, 작은 행복들마저 앗아가는지 더욱이 원망이 깊어졌다.

그 후론 나는 더욱 행복해지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바라보면 모두 행복해 보였다. 내 인생에서의 행복은 크리스마스나 생일처럼 가끔 가다 한 번 있는 이벤트인데 왜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지 화면 속 행복한 이들을 보며 나는 더 불행해져만 갔다. 그러다 문득 행복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소확행은 없었다. 그것들은 모두 단발성의 만족감일 뿐이었다. 그것들은 날 작은 그릇에 안주하게 만드는 소소한 행복에만 머물게 하는 족쇄일 뿐이다.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 행복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불행해지는 듯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의 행복은 내 인생 그 자체이다. 작은 것이 아닌 큰 만족감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내 인생만이 진정한 나의 행복이다. 나를 숨 쉬게 하는 것은 행복이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숨 쉬게 한다. 나는 오늘도 행복 그 자체인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 안의 작은 씨앗

박유정

사회복지학과

행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거창한 행복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가 말했던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소확행’이라는 줄임말이 널리 쓰이고 있듯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내가 오늘 풀어볼 행복은 이렇게 작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나열해보려고 한다.

요즘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에서 작은 행복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작은 정신 건강에 이로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며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하지 못하고 여행 또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현재 시기에 나에게 있어 소소한 행복이란, 그 시간을 이용해 나의 미래를 가꾸는 것에 쓰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처지에서 나는 대학생이고 또 신입생이며, 한창 즐겨야 할 1학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 수업과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토대로 현재가 어둡다며 나까지 어두워지기보다, 미래를 더 가꾸어 나가기로 생각하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나은 나의 미래를 위해 가꾸고 있다. 우울함을 나의 미래에 담아내고 나니 그로 인해 따라오는 나의 성적표가 나의 소소한 행복을 보장해주었다.

다음으로 나의 소소한 행복은 우리 가족과 강아지와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화목한 우리 집이더라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자주 모여 밥을 먹고 저녁에 매일 모여 대화하는 시간은 항상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며 우리 가족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서로 간 대화의 폭도 넓어졌다. 또, 우리 집 막내 강아지와도 많은 유대감을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항상 마음 한편에 걸려있던 강아지와의 시간을 이번 연도에 많이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께 보내며 따라오는 가족과의 단합력과 화목함은 나의 행복함이 배로 다가오는 순간들이었다.

현재 우울한 시기의 소소한 행복을 찾자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다. 나 또한 우울하고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행복 하나씩은 품고 산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추워진 날씨의 크리스마스 노래, 또 전기장판 속에서 꿀 먹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는 것, 하물며 내가 현재 해결해가고 있는 과제의 굴레 속에서도 행복은 있다. 다 해내고 난 뒤의 작은 성취감이다. 또 현재 힘든 시기로 인해 느끼는 과거의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과정들마저도 나는 내 마음속의 작은 씨앗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운 면만 부각해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작은 행복이라는 씨앗을 꽃을 돌보듯 들여다보고, 물도 주고, 좋은 말도 해주며 가꾸어 내 행복이 나중에 꽃을 피워 나에게 좋은 향기 즉, 좋은 영향을 남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했듯 행복인 줄 몰랐던 과거의 행복들이 현재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는 현재 나는 사회복지과 학생으로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일상에서 늘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에 나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에도 감사하며, 소소한 것에도 진정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 나를 보는 다른 이들에게 이로운 영향을 퍼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영향을

퍼트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마저 나의 소소한 행복일 것이기 때문이다.

포커 페이스

박윤수

항공호텔관광경영학부

요즘 거리에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다닌다.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전염병을 잡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보기에는 참 낯선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나에게는 아직 어색하기만 하다.

사실 나는 이렇게 되기 전 평소에도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녔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 숨기고 싶은 마음이 컸었던 까닭인 것 같다. 예전부터 그랬다. 나에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애초에 부딪히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스크의 힘을 빌려 나의 감정을 열심히 숨기고 다녔다.

이렇게 겁쟁이 같은 나에게 밖에 나갈 때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희소식이었다. 나 혼자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간혹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걱정 어린 질문을 받기도 한다.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돌아 다닌다면 위 같은 질문을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타인의 관심과 간섭을 내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다 보니 거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얼굴을 가린 사람들 틈을 거닐며 받은 느낌은 평소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내비치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옷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들 사이를 혼자 걸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해주었다. 감정이란 것이 사람의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고, 억울할 때 함께 화내주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풍부한 감정표현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해준다. 사람이기에 감정이 있고, 감정이 있기에 사람인 것인데 나는 이를 드러내는 것을 왜 그토록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는지.

요즘 거리에 나가면 세상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원래 가깝지도 않은 그저 잠시 스쳐지나갈 뿐인 사람들이었다만 요즘 따라 더욱더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지금에 와서야 많은 것을 깨닫는다. 나를 감추는 마스크를 벗어 던지더라도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 풍부한 표정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를 거닐고 싶은 마음이다. 하루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할 뿐이다.

토론과글쓰기2 48분반 우수작

새하얀 웃음 귀에 걸고

임경은
미술교육과

연초에 중국에서 전염병이 생겼다는 소식을 놀러 가는 차 안에서 친구를 통해 전해 듣게 되었다. 놀러 갈 생각에 한껏 들떠있던 나는 그냥 가벼운 전염병이겠거니 하고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전염병은 머지않아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태의 심각성은 피부로 와닿게 되었다. 전염병 소식을 전해들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였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확진자들, 그리고 사망자.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수치는 전 세계를 공포로 뒤덮었고,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늘어났다. 백신도 없는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의지할 건 오로지 마스크 한 겹뿐이었다. 이 얇은 마스크 한 겹이 나를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만남은 제한되었고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상가와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해졌고, 마스크에 갇힌 삶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우리가 지구를 너무 함부로 사용한 탓일까, 자연에 끼친 피해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일까. 코로나 19가 터지기 전 마스크 없이 살던 시절을 나는 알기에 그리워할 추억이 있지만, 어린이와 아기들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맞이하여 마스크와 함께 커가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리다.

이제는 필연적 존재가 되어버린 마스크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간다. 공포와 분노, 불안, 우울감으로 복잡했던 감정선들이 덤덤해질

만큼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신 개발을 위해 힘 써주시는 연구자분들, 목숨 걸고 확진자들을 치료해주시는 의료진분들,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방역대책본부 관계자분들. 이러한 분들 덕분에 피폐해진 삶 속에서 그나마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런 감사한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려 한다. 자기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작지만 이 같은 노력들이 하나씩 모이면 언젠가는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리라 믿는다. 또 지금의 상황을 잊지 않고, 같은 문제를 또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여 살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토론과글쓰기2 49분반 우수작

소중한 시간 그리고 삶의 행복

박종호

항공호텔관광경영학부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밑그림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게 현대인들은 매우 바쁜 삶을 이어나아가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픈 후유증을 보여주듯 빠른 경제성장과 회복기를 가지게 됨으로서 우리는 더욱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현대인들의 표정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 보아도 여유 있는 모습을 갖추기 보다는 내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당장 오늘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에 과연 현대인이 생활하고 있는 시간 내에서의 크고 작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지게 되었다.

나의 주변인의 사례의 경우로 보았을 때 A씨의 경우 지나간 시간동안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한 끝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행복을 얻었다고 말한다. 우울함에 정체되어 있던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꿈의 대학에 진출하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생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업무 시간의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는 행복을 가까운 곳에서 찾아낸 이들도 있다. 회사원 B씨는 평소 퇴근 시간이 늦어 별도의 여가활동을 하는데 제한 사항이 많았는데 회사 내에 규정된 복지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어 점심시간과 더불어 일과 후에 사내에 배치

된 음악동아리에 참석하여 평소 답답하고 힘든 본인만의 우울함을 달랠 것으로서 소소한 재미를 찾았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나는 우리가족들이 각자 본인이 소속된 직장과 위치에서 잘 풀리는 모습에 행복함을 느낀다. 나 자신이 성공하여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여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성공하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느끼는 그 응원의 메시지는 내일의 또 다른 우리가족의 원동력이 됨으로서 앞날의 즐거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결국 행복함이란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주변을 한번만 둘러보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외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반경내의 생활 패턴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행복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행복이란 찾으려고 애를 써도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함이기에 오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함은 보석보다 밝게 빛날 것이다. 우리 모두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 속의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

토론과글쓰기2 50분반 우수작

나의 우울증 이야기

조연수
관현악학부

사람들은 모두 성적이나 취업,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로 각자 자신만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중학생 때 친구 문제 때문에 가벼운 우울증도 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죽고 싶다고 가볍게 생각하다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내가 살아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렇게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고등학교 때 진심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내 방 베란다 난간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이었는데, 끝에서 나를 붙잡는 것이 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베란다 난간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과 힘들었던 기억들뿐이었는데, 난간 앞에 서는 순간 거실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신 엄마가 생각났다. 나는 그 생각 하나에 오랜 시간 동안 머뭇거리며 서 있었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침대에 누워 남은 밤을 보냈었다.

그러다 며칠 뒤, 아빠가 아는 분의 아들이 자살을 했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울부짖다 탈수 증세로 쓰러지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다. 그 얘길 들은 엄마는 진심으로 슬퍼하시면서 공감하셨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날 밤 시도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때가 처음이었다.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했던 건. 그리고 그 이후

로는 절대 자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조금이라도 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었다. 직접 죽으려는 시도는 사라져도, 죽고 싶다는 생각과 깊은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것이 유독 힘들게 느껴져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걸 붙들어준 나의 레슨 선생님의 한마디가 있었다.

“내가 목원대를 보낸 학생들 중 네가 가장 자랑스러운 학생이 될 수도 있겠어.” 선생님께서는 그냥 평소 다른 학생들을 칭찬하듯이 가볍게 해주신 말씀이었겠지만 그것은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내 목표가 되었고, 내가 나아가고 살아 있을 이유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내가 잊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영화 속 ‘기적은 주변에 있던 사소한 것들도 될 수 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영화 속에서 말하는 ‘기적’은 단순히 커다란 무언가 만이 아닌 주변의 사소한 친절들도, 누군가의 사랑도 포함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굉장히 작고 사소해 보여 놓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들이야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가장 큰 힘이었다.

그것을 깨닫자 나의 일상과 행복 지수가 굉장히 달라졌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며 떠들기도 했고, 사소한 친절이나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는 행복함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내가 사차원이 된 것 같으며 편하게 장난칠 정도였고, 사람들 모두 내가 많이 바뀌었다며 보기 훨씬 좋아졌다고 할 정도였다.

그 이후로 나는 너무 힘들다며 그만 자살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상담해올 때마다 해주는 말이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간 살게 해줄 무언가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여유가 생기면, 주변의 사소한 것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다만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 말이다.

나는 자살을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주고 싶다. 조금만 더 살아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날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나타난다고,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언젠가는 사소한 것에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도 부디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배수정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중학교 때까지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 다 같이 모여 운동을 하는 걸 좋아했다. 그때는 그저 재밌고 즐거웠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어느 순간 운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그때의 나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내 친구는 대학 발표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예비로 붙어 울었다. 나는 6개 대학에 다 예비로 붙어서 속상했다. 나는 그저 내가 노력한 보상이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속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5개의 대학은 다 붙었기에 이렇게 대학에 오게 되었다.

지금은 2학기 말이라 그런지 나의 전공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된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했고 꿈도 없었기에 체대입시학원을 다니며 체대에 오게 되었다.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땐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수업이다 보니 다른 과목보다 쉬웠고 흥미를 가졌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과 같은 흥미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저 고등학교 때처럼 의무감으로 출석과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다.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그저 익숙해져 버려 생긴 감정인지 나와 맞지 않는 전공에 대해 거부하는 감정인지 잘 모르겠다.

나의 초등학교 때의 꿈은 화가였고, 중학교 초반의 꿈은 미용사였다. 이 꿈들은 정말 내가 좋아해서 생긴 꿈들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그림을 그리

는 것이 재밌고 즐거웠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으며 친구들의 머리를 손봐주면 친구들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느낌이 좋았다. 초등학교 때의 꿈은 그저 지나가는 잠깐 추억 속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꿈을 버린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랬지라며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꿈이었다. 하지만 중학교 때의 꿈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 미용 쪽으로 나가볼 걸 그랬나 하며 후회를 하게 된다.

부모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때 미용사의 꿈을 포기했던 것은 학원비 때문이었던 것 같다. 한창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볼 시기였다. 유튜브 영상 중 미용용품의 가격에 대한 영상을 보고 비용을 생각하며 조용히 꿈을 접은 것 같다. 고3 때 다닌 체대입시학원도 미용학원과 비슷한 비용이었을 텐데 말이다.

나는 이번 학기까지만 다니고 휴학이나 자퇴를 고민하고 있다. 휴학이나 자퇴 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미용에 대한 꿈을 다시 생각해 볼까 한다. 그런데 나는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휴학이나 자퇴를 하게 된다면 남들이 쳐다볼 시선이 두렵다. 그럴 줄 알았다는 눈빛, 너 포기할 줄 알았다는 눈빛이 무섭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학기 시작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나만을 생각하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마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삶

조민영

만화·애니메이션과

얼마 전 고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의문을 느낀 적이 있다. 어떤 사진을 찾아봐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었다. 2020년 코로나 19 상황을 맞이하고 우리의 삶에서 마스크란 떼어낼 수 없는 필수용품으로 자리 잡았다. 뉴스에서는 심심치 않게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두려워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나 또한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코로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밖을 나갈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긴급 재난문자를 받아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확인한다. 가게에 들어갈 때에는 쿼알코드와 방문문서를 작성하고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피한다. 이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문제들이다. 새삼스럽게 우리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가 파기하는 일은 이제 일상이다. 먼 곳에 사는 가족들은 보지 못한 지 꽤 되었고, 학교의 수업은 실기 과목 몇 가지를 제외한다면 전부 비대면 수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 신입생인데 어찌면 좋니.’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실제로 마스크가 없던 시절에 상상한 대학의 광경과는 사뭇 다르다.

그렇지만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대학 신입생이 아니

라 노동자 및 자영업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매일 같이 배달에 나서야하는 배달원들.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공들인 가게를 접어야 하는 자영업자들. 그들이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대학가 주변에서도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이 보인다.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예전에 가게를 하셨던 조부모님이 생각이 난다. 손님의 입장에서든 괜찮다고 생각했던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늘어나는 확진자의 수만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일상도 연장된다. 그 말은 누군가의 생계가 위협받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마스크 속 맨얼굴

이재광

광고홍보언론학부

어렸을 적부터 비염이 심했던지라 마스크 쓰기를 권장 당했었다. 가끔 마스크를 쓰고 나간 날 비염이 터지더라도 하면 마스크 안은 추악함 그 자체가 돼버렸다. 겉으로는 밝은 척 아무 일 없는 척하다가 기회를 봐 화장실로 도망쳤다. 마스크를 벗어 뒷수습한 뒤 빨개진 코를 볼 때면 그리 기분이 좋진 않았다. 나는 다시 빨개진 코를 마스크로 덮고 아무 일 없던 듯이 나갈 때가 종종 있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모두가 마스크를 쓴다. 어린 나이부터 마스크에 대한 추악한 기억만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의 마스크 안은 안녕한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스크를 유심히 지켜보기로 했다. 화장이 묻고 지워진다는 친구, 마스크로 인해 피부가 상했다는 친구, 마스크를 쓸 거라 씻지 않았다는 친구, 아무렇지 않고 깨끗한 친구.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기사를 봤다. ‘코로나 성형외과 매출 늘어...’ 놀람과 감탄이 동시에 나왔다. 동질감이 느껴졌다. 형태만 다를 뿐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똑같지 않은가.

성형을 비꼬고 비하하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은 각자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습으로 보이도록 한다. 이를 보고 마스크를 썼다고 말하기도 한다. 본래의 자신을 숨기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용도이다. 필자는 이런 생각

을 했다. 코로나를 막아주는 마스크가 어찌면 다른 무엇인가를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의 얼굴을 가릴 마스크 같기도 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마스크, 내적 성향을 가려줄 마스크 등 여러 용도로 해석되는 것 같다.

마스크를 보고 있으니 괜스레 마음이 쩡해졌다. 마스크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며 무엇을 담고 있을지 가늠도 안 된다. 각자의 사정은 개인이 할 일이며 남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 마스크 밖으로 감춰진 얼굴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한다.

내가 행복을 다루는 방법

류서단

국제무역물류학과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하게 살기’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생각한다. 나에게 있어 행복은 내가 추구하는 인생 그 자체이다. 행복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과거는 쉽의 그루터기, 현재는 사과나무, 미래는 원동력이 된다.

과거에 있었던 행복은 살면서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페이지이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책갈피를 꽂아 놓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겹겹이 쌓인 페이지들은 내가 왜 열심히 살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 늘 한결같은 답을 던져준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새로운 페이지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전에 읽은 책에서 ‘추억은 인생의 버팀돌이 된다는 것’이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게 과거의 행복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페이지들은 가장 확실하고 단단하게 나를 받쳐주는 버팀목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현재의 행복은 사과나무이다. 스피노자의 명언인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사과나무와 같다. 나는 이 말을 당장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고 오늘의 행복을 우선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먹고, 가고 싶은 곳

이 있으면 바로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을 완성시키면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고, 일 년이 되고, 뒤 돌아보면 십 년이 되어 있다. ‘현재의 내가 행복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행복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다.

미래에 있을 행복은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사실 미래의 행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현재의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쩌면 행복을 기다리고 있을 미래의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행복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촘촘히 준비하면 설렘이 두려움을 압도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다가오는 미래를 기대하며 설레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은 사실 하나의 행복으로 이어져 있다. 과거의 행복이 현재를 살게 하고, 현재의 행복은 또 다른 과거의 행복이 되고, 미래의 행복은 현재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다. 크고 작은 행복들이 모여 나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과거의 행복을 추억하고,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며 산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자 나의 인생이다.

어쩌다 되어 버린 21살, 그리고 대학생

성해주
행정학과

어느덧 끝나가는 2020년, 올해는 참 바쁘게 살고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도 참 많았다. 긴 시간을 지나 나는 21살이 되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대학생이 되었던 꽤나 즐거운 추억, 이제 2020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오늘에서야 나는 추억으로 묻어 둘 준비를 한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늦은 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내 1년을 떠올려보기 위해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다.

2020년 초,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전화기만 붙든 채 살았다. 행여나 전화가 겹쳐 연결이 되지 않을까봐 모든 이들에게서 오는 전화는 전부 거부하고 문자로만 소통하고 살았다.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체념한 상태로 지냈었으나 저녁 9시경 갑작스레 울린 전화에 나는 그날 바로 대학생이 되었다. 전화를 끊고 기쁨에 몸서리치며 이제 나도 대학생이라는 생각에 그날만큼 전율을 느꼈던 적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입학금과 등록금 모두를 지불하고 수강 신청을 앞두었던 3월, 처음 해보는 수강 신청에 심장을 부여잡고 오들오들 떨었었다. 새내기가 되었다는 기쁜 마음과 부모님의 축하와 함께 선물 받았던 노트북으로조차 진행할 수 없어서 짧지 않은 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수강 신청을 진행했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했던 모든 과목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이 날을 발판삼아 다음 수강신청 때는 더 잘 할 수 있으리라는 경험을 얻게 되었

다고 생각했다.

한 팔에 책을 끼고 한 손으로는 귀를 넘기며 또각또각 캠퍼스를 돌아다닐 걸 생각했던 4월, 나는 한 팔로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 손으로는 턱을 괴며 꼼지락 꼼지락 침대 위를 배회했다. 코로나의 여파로 기대했던 새내기 생활이 아닌 그저 방 안에서 사이버 강의만을 들으며 시험을 보고 교수님의 얼굴을 뵈고 동기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 몹시 가고 싶었고 근처 맛집을 돌아다니며 동기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싶었고 밤새 과실에서 과제를 해보는 등의 경험을 원했지만 나는 학교의 입구조차 밟아볼 수 없었으며 손에 들린 전공 책과 모니터 너머 등장하시는 교수님의 강의와 함께 대학생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학교에 정말 가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는 시국의 등장으로 나는 1학기가 채 끝나기 전에 단 한 번도 학교를 밟아보지 못했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처음 맞는 방학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알바도 열심히 해보고, 전공 서적을 들고 씨름하며 자발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했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 연인이 되며 참 많은 인연들을 만들었던 것 같다. 방학이라고 집에서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밖을 최소한으로 돌아다니면서도 많은 인연들을 만들고 많은 지식을 쌓는 아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수강신청 기간에는 지난 학기의 경험을 발판삼아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번 학기에는 다행히도 잠시나마 학교에 나가 강의를 들어볼 수 있었으며 교수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선배님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새내기의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 한 학기였던 거 같다.

1학기 때보다는 학교에 더 자주 가고 학교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았지만 아쉽게도 11월 중순부터 다시 시작된 코로나 문제로 결국 학교에는 다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종강까지 쭉 학교에 나갈 수 없을 예정이지만 잠시 새내기 같았던 그 날을 계속 떠올리며 무사히 종강을 마친 뒤 내

년에는 꼭 여파가 마무리되어 학교에 매일 발걸음을 할 수 있는 나날이길 바란다.

코로나로 인해 나는 학교에 자주 나갈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렇게 21살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으며 이렇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안전 도구

이지운

융합컴퓨터·미디어학부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중국에서부터 발생한 이 바이러스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계로 퍼지면서 시작된다. 우리나라에도 1월말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청났다. 호흡기질환과 비슷하여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쉽게 퍼져나가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겼다. 이를 막아내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호흡기 질환의 일부이며 감기처럼 퍼져나가는 이 코로나19를 막을 방법은 마스크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접촉을 피했음에도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말을 하면서 침이 튀는 경우가 있다. 그때 대화를 하면서 날아가는 침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마스크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런 마스크가 안전도구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

마스크도 생산품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경우였다. 그로 인하여 5천만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는 대혼동이 벌어진 것이다. 당연히 하루, 이를 써야하는 마스크를 미리 만들어 놓을 경황도 없었으며 갑작스레 사람들이 몰려드는 현상으로 마스크는 구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마스크 하나에 1000원에서 1500원까지 올랐으며 여러 곳에서 거래가 되었다.

심지어, 마스크를 생산하는 사람이나 높은 직위에서 마스크를 배분하라고 주었던 것을 빼돌리는 사건들도 있었다. 마스크를 생산했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마스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또한 간부나 높은 사람에게 마스크를 배분하라고 대량으로 주었지만 빼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12월인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생활하는 것이 가장 쉽고 바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지켜 이 상황이 빠르게 끝났으면 한다.

토론과글쓰기2 57분반 우수작

나의 새내기, 나의 첫 대학 생활

김지나

시각디자인학과

인생에서 한 번 뿐인 새내기의 삶. 힘겨웠던 입시를 끝마치고 당당히 대학에 합격한 우리는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에 손꼽아 기다렸던 오티도, 엠티도, 새터도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1학년’, ‘미개봉 중고품’. 20학번 새내기들인 우리에게 붙은 수식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지만, 설렘을 가득 안고 막 대학생이 된 우리는 몹시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꽃 피는 계절이 되었고, 우리는 그보다 더 꽃다운 스무 살 대학생이 되었으나 벚꽃놀이커녕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 참담한 심정은 우리 외엔 아무도 이해 못할 거다. 캠과 마이크를 켜고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 온라인 시험, 온라인 토론, 온라인 과제. 누군들 이런 상황을 예견했을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배우는 입장에서도 너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 여러 부분에서 뼈저거릴 수밖에 없었다. 매일 아침마다 쏟아지는 재난 문자들. 어딜 가든 마스크를 써야 했고, 놀러 나가는 것조차 두렵고 조심스러웠으며, 반 강제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야 했다.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시간이었다. 노래방을 가고, 예쁜 카페를 가고, 물러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집에서 소맥을 마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으나 당장 동네에 확진자가 들끓는 마당에 집 밖에 나가기도

무서운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한참을 불평했다. 처지를 한탄하고, 신세가 참 불쌍하다며 곡소리를 냈다. 그런데 말이다. 문득 생각이 드는 거다. 이렇게 우울해하고만 있으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2020년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해보기로 했다. 생각의 전환을.

욕실에서 노래를 부르면 에코를 넣은 것 마냥 목소리가 울린다. 노래방에 가는 대신 나는 그곳을 나의 노래방으로 삼았다. 집 냉동실에서 얼음을 얼려 시원한 오렌지 에이드도 만들어 보았다. 누가 만들었는지 맛이 제법 그럴듯해서 카페에 굳이 안 가도 되었다. 새벽녘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캔 사 와서 홀로 반신욕을 하며 마셨다. 술집 못지않은 낭만이었다. 미루기만 하고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고, 잠도 실컷 자고, 게임도 실컷 하고, 좋아하는 배우가 출연한 작품을 며칠 밤을 새며 모조리 몰아보기도 했다. 한동안 쓰지 못했던 일기도 다시 쓰기 시작했고, 먼지만 쌓여 갔던 피아노를 연습하기도 하고, 캄캄한 방에서 창밖으로 야경을 바라보며 좋아하는 노래를 몇 십 번이고 반복해서 듣기도 했다. 그렇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얼마 만이었는데. 신기한 일이었다. 나는 점점 그 고요와 사색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끔찍하고 암담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되려 좋은 것들을 얻은 것이다. 나는 그저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의료업계 종사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기나긴 전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는 굳이 나빠야만 할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다. 우리 모두에게 동등하게 닥친 어려움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누군가에겐 그저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다신 없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통을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열쇠는 그저 생각 한 곳 차이인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타인과 거리를 두는 대신, 내 스스로에게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어떨까.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목표와 꿈을 재정비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나 자신’ 과 더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끝없이 가라앉는 대신에 반드시 비상할 것이다. 조금 더 단단해져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을 스트레스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즐겨 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전환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겨낸다면 이 오랜 먹구름도 분명히 걷히고 다시금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의 첫 새내기를, 나의 첫 대학 생활을 암담하게만 두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 나는 어느 때보다도 밝고 힘차게 이겨나가고 싶다.

소확행(小確幸)

이승언

도시 · 환경 · 화학공학과

오랜 고난 끝의 성취, 목표 달성, 일확천금의 기회 등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양하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지향한다. 삶을 영위하며 환희로움을 맛보고 부러운 것 없이 생을 즐기는 것과 같은 갈망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본능으로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사람의 행복의 원천이자 근본은 뭘까?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 이 의문에는 많은 답이 제기되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다. 행복의 물음에 대답을 망설였던 것은 나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의 나는 행복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기쁘고 즐거운 일은 일시적인 행복감을 줄 수 있었어도 그 지속성은 길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업, 생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바쁘게 삶을 살아왔다고 믿어온 나에게 행복이란 사치에 불과했다. 그렇게 행복에 대한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살아온 나에게 행복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문득 스쳐온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에 행복을 느낄까?”라는 생각은 나의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사람에게 은근하게 물어보았다. 대답은 억만장자, 넘볼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같이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수집품을 모으고 가

족끼리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휴일에 늦잠을 자는 등 사소하고 간단한 것들이었다. 지난날을 회상했을 때, ‘초등학교 때가 좋았지’, ‘중학교 때가 좋았지’, ‘고등학교 때가 좋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사실 나는 모든 순간 행복했었다. 과거를 회상하면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괜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그래서 깨달았다. 나는 작고 사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었기에 모든 순간 행복할 수 있었다. 과거의 나에게 행복이란 낙원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낙원에서만이 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내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행복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낙원에 도달했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다. 내가 살아가는 도중에 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항상 행복을 갈구했던 나에게 행복에 대한 깨달음은 많은 변화와 내면의 평화를 이끌어 왔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휴일에 알람을 맞추지 않고 늦잠을 자거나, 강아지와 하루를 놀거나, 편한 잠옷 차림으로 누워 영화를 보거나, 아침에 구워지는 구수한 빵 냄새와 내려지는 커피 향을 맡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등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낀다. 누구에게도 구애받거나 간섭받지 않고, 오직 나만이 누리는 행복이 쌓이는 요즘 나의 삶은 정말 풍요롭다.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도 되지만, 한자 그대로 小(작다), 確(확실하다), 幸(행복하다)을 일컫는 말도 된다. 거창하고 허물없는 행복보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준다. 낙원에 도달하는 방법은, 행복에 대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에 대한 정답은 본인이 적은 답이 곧 정답이요, 낙원에 도달하는 방법은 본인만이 알고 있다. 낙원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면, 뒤돌아보았을 때 자신은 이미 낙원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일궈낸 작은 행복들

김민지
미술교육과

어느덧 2020년의 끝자락인 12월이 다가왔다. 마스크를 쓰면서 시작한 해이지만 그 끝은 언제일지 모른 채 마스크를 쓴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년은 나의 성격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던 해이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제한적 대면 수업 속에서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고 피곤했다. 또한 타지에 나 혼자 고립되었다는 생각은 나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었다.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여 마스크를 벗으며 집에 돌아와서 쉬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혼자 기숙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해졌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귀찮아하는 나와 다르게, SNS에서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한층 더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기도 했다. 그래서 SNS를 접었고, 계속해서 나만의 안식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이렇게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주변과의 단절로 인한 소외감이 들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나 자신과 나의 행복,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당장 코로나로 인해 내 일상이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나’ 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행복을 찾는 일, 그것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행복,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잡는 일이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 앞서 현재의 나를 채찍질 하고 몰아세웠던 것은 바로 ‘나 자신’ 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결과에만 일희일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일상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내가 나를 위해 다짐한 마음가짐은 총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해 꾸준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 1인 1닭을 선물하고 있다. 또 갖고 싶은 것이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 번씩 나한테 선물하면서 물질적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는 멀리 보기 시작한 것이다. 눈앞에 놓인 과제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꿈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독서를 조금씩, 꾸준히 읽기 시작하였다. 좀 더 멀리 보고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이다. 나는 남의 눈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내가 틀려서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한 정답이 틀려서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며 항상 주저하고 망설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강박의 끈에서 나를 놓아주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발표시간에서 처음으로 내 의견을 말해보기도 하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2020년, 마스크를 쓰고 시작된 대학 생활, 풍파도 많이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곧 그 한 해도 끝 무렵에 다다른다. 혼자 있는 시간, 집에 갇혀 있어야만 하는 시간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계발할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이 될 뿐이다. 그렇지만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한 1년은 헛된 시간이 아닌 너

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 된다. 너무나도 빠르게, 또 정신없게 지나간 한해이지만 그 속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내가 스스로 이뤄나간 것은 작지만 값지고도 소중한 것이 아닐까.

토론과글쓰기2 60분반 우수작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수빈

영어영문학과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어린아이에게 어른이 흔히 하는 질문이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놀고, 먹고, 잠을 자야 한다. 그 규칙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이었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낮잠에 쉽게 들지 못했기 때문에 억지로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꽤 고역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살아보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저마다의 사정에 고통 받는다. 아버지의 직업은 군인이다. 어느 정도 경력이 찬 공무원은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꿈이지만 아버지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셨고 자주 이직을 고민하셨다. 남들에게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버지에게는 지루하고 답답한 일터였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돈과 타인의 사랑을 모두 가진 연예인들의 갑작스러운 비고도 나의 가치관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사람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답하기 위해 나는 많은 조건을 생각해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하루에 10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 울지 않는 사람... 등 기준을 생각해낼수록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건들이 보였고 점점 내가 불행한 사람

이라고 느껴졌다. 이상하게도 행복해지기 위해 시작한 일이 나를 절망 속으로 끌고 갔다.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취미였기 때문에 나는 그때 품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수년간 고민했다. 그때그때 나의 상황에 맞춰서 행복의 조건을 달라졌다. 그리고 점차 행복이라는 것은 결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라고 생각했다. 내가 채울 수 없는 결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수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원할 때 먹고 자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한 달 뒤면 23살이 된다.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무수히 많은 행복의 조건들을 생각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할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행복의 조건들을 고민하겠지만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고 절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말이다.

토론과글쓰기2 61분반 우수작

일상에서 행복 찾기

임소연
소방안전관리학과

옛날의 나에게서는 행복이 꽤나 거창한 것으로 느껴졌다. 어디 아름다운 여행지로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들과 시내로 놀러 간다거나, 생일날 선물을 많이 받는다거나 정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등 말이다. 당시의 나에게서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 있었고, 좋은 가족들이 있었고, 일상 속에서 웬만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만족할 줄 몰랐다. 아니, 행복해하는 법을 몰랐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다. 나는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야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찾기 힘든 네 잎 클로버처럼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의 꽃말은 네 잎 클로버가 아닌 세 잎 클로버가 가졌듯이 행복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행복을 얻는 법을 배우고 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으며 느끼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잃게 되며 깨닫기도 한다. 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를 얻었을 때가 그랬고, 아빠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가 그랬다. 나는 남자친구와 마주치는 눈에서,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에서, 같이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여태까지 크게 아프셨던 적이 없었던 아빠가 편찮으시고 나서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집에 있다는 사실과, 그날들이 내 일상이 되었던 것에 행복을 깨달았다. 지금의 나

는 저물어가는 주황빛 노을에, 저녁에 부는 선선한 바람에, 봄날의 포근한 기운에, 야식으로 시켜 먹는 치킨에, 추운 날 사 먹는 따끈한 봉어빵에, 날 아껴주는 친구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원할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것에서 행복해할 줄 안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바쁘지 않고 걱정도 없던 어린 시절이 가장 행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느끼고 행복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나는 우리들이 더 많은 행복들을 느끼고 찾아갔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감정들을 느끼면서.

마스크의 의무화

천성연

사회복지학과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범유행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이다. 코로나-19는 감기처럼 매우 쉽게 전염되며, 고령층을 상대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의 병원 간호사들이나 10대 청소년들 또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현재 제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하는 바이러스다. 이러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사람들에게 KF마스크를 권장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그저 마스크가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또한 있다. 그들의 생각은 ‘나 하나 마스크를 안 쓰는 건데.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걸리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걸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의 사소한 행동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되면서 11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마스크 착용의 예외적인 상황인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최근 일을 예시로 들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친구와 길을 걸어가면서 ‘나 마스크 안 썼는데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너무 무서워’ 라는 말을 하면서 내 옆을 지나갔다.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서 쓸 생각조차 안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예시를 들면, 새벽에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두 사람이 밀폐되어있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일지라도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사람들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 가까이 늘어난 이상 강력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며, 각 지역에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을 잡아내고, 학교, 학원, 카페 등 공공시설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마스크 의무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본다.

내가 꿈꿔왔던 대학생

표수민

피아노과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경험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학생살에 대한 많은 기대와 꿈을 꾸게 되었고, 이것은 나의 입시 시절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자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토록 멋져 보였던 대학생에 대해 내가 꿈꿨던 로망과 현실을 적어보려고 한다.

사실 가장 많이 기대했던 것은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계단식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나의 커다란 로망이었다. 악보를 들고 학교 연습실에 가서 밤새 연습을 하거나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는 대학생도 고등학생이었던 나의 눈에는 멋져 보였다. 과 동기들과 함께 파티를 나가고 학교 MT, 동아리, 체육대회, 축제 등 대학에서만 할 수 있는 자유롭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내가 올해 겪었던 로망과 현실이 다른 이유에는 코로나 19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난 3월, 학교 입학식이 취소되고 팀즈, 줌과 같은 화상강의 플랫폼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미래에 가능한 일로 미뤄져야만 했다. 당연히 MT, 체육대회, 축제 등은 할 수가 없었고, 코로나로 인해 만날 장소도 여의치 않아 파티도 불가능하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 동기들과 친해지는 것은 6월이 돼서야 가능하게 되었고.

꿈만 같았던 대학생활은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노트북을 붙잡으며 수업만 듣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참담한 사실에 이러려고 대학에 왔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의 로망을 실현해보고자 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마주해야할 현실이었기 때문에 잠자코 있기에는 나의 소중한 스무 살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내가 음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실기 과목에 한정하여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교수님과 일대일 레슨도 받고, 학교 연습실에서 연습도 하며 꿈꿨던 로망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다. 학교에 다니면서 동기들과도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나 같은 클래스의 선배님들과도 차차 친해질 수 있었다. 비록 학교 행사나 강의실 사용은 거의 해볼 수 없었지만, 동기들과 함께 연습도 하고 수업을 받는 것은 조금이나마 내가 꿈꿨던 대학생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고등학생 때, 대학생은 나의 동경의 아이콘이었다. 그토록 꿈꿔왔던 대학생이 되고나니 현실과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고, 불가피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더 성숙한 대학생이 되도록 노력해보고자 한다.

토론과글쓰기2 64분반 우수작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법

양채원
음악교육과

밖에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볼 수 없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마스크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다닌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나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 힘들고 벌금도 낸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나 자신도 안전해지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아무리 불편하고 갑갑해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전파될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이다. 즉, 타액이 코나 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타액만 막는다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감염률이 5%로 줄어들고, 마스크를 모두 쓰고 있으면 감염률이 1.5%까지 떨어진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면 코로나 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에서 그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더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가 증상이 훨씬 경미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감염된 것과 안 쓰고 감염된 것의 차이가 크다.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스크를 잘 선택해서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에도 종류가 매우 많은데, 일반 면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K80부터 K94 마스크까지 나오기도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K80 정도의 마스크만 써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면 마스크는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터 효과도 떨어지고, 마스크의 특성상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들이 있을까?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알코올로 소독한 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착용할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하고, 마스크와 얼굴 사이에 틈이 없는 게 좋다. 마스크를 착용해도 입과 코가 보인다면 효과는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스크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는 것도 마스크의 밀착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게 좋고, 마스크를 재사용할 땐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했던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고, 깨끗한 장소에 충분히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에도 끈만 잡고 벗은 후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이처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스크가 불편하고 갑갑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예방에 힘쓴다면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없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토론과글쓰기2 65분반 우수작

나의 행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최혜림
TV·영화학부

코로나 19사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나는 유달리 작년보다 몸은 편하면서도 마음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비대면 방침으로 인해 수강 신청 당시 이동 시간을 고려한 시간표를 짜지 않아도 됐었고, 나갈 준비를 하느라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어졌다. 이렇듯 한없이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을 지녔는데도 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 진정한 나의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나는 과거의 나를 되돌아봤다.

처음은 5월이었다. 첫 대학 생활을 집에서 보낸 지 두 달째,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과제물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모두가 처음 맞는 기이한 상황에 점수 측정이 어려워지면서 대면일 때보다 과제의 양도 늘고, 중간고사마저 과제물로 대체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과제 폭탄’을 맞게 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 점점 늘어나는 과제물을 차근차근히 해내도 내가 일을 처리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는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 이로 인해 나의 소소한 행복과도 같았던 그림을 놓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마저 사라졌다. 의욕만 넘치던 3월의 활기는 5월이 되자 점점 생기를 잃어서, 남은 기말고사까지 버틸 힘이 있을까? 하는 의문만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지난 5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인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됐다. 결국 매주 과제를 처리하던 기계 같던 나는 과부하가 걸리면서 모든 일을 강제로 중단시켰다. 쌓일 대로 쌓인 스트레스, 매너리즘에 빠진 것만 같은 사고의 정지, 몸의 무기력함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과 행복이 간절했다. 다행히 모든 일을 멈추고 나를 돌보고 나니 번아웃 증후군은 나를 떠나갔지만, 12월인 지금 5월을 되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그림 이외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내일을 살아가게 만들고, 내일을 기대하게 할 작은 행복을 손에 쥐고 있어야 했다. 힘든 시기에 내일을 생각하면 압담해지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던 때에 나를 환기할 다른 취미가 있었다더라면 그때 그렇게 괴롭지 않아도 괜찮았을 거로 생각한다.

그다음은 비교적 최근인 11월이었다. 2학기에 들어서면서 실기 과목은 대전에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됐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대전까지는 자그마치 기차를 타고 2시간, 대전역에서 1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려 총합 3시간이 걸렸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한다는 월요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2학기에 들어서야 입시 면접 이후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꼴이 되었다. 그런 상황이라도 학교에 가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이동 시간을 잘 활용해보자는 포부도 한껏 품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있을 때도 있는 법. 예상했던 것보다 체감되는 이동 시간은 훨씬 길었고, 아침 일찍 움직이는 생활은 더 힘들었다. 주말에도 편하게 쉴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평일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도 않은 채 새로운 평일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했다. 결국, 포부 넘치던 학기 초와 비교해 이동 시간은 피로를 해결하기 위한 수면 시간과 다를 바 없어졌고, 실기를 하는 동안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몸의 피로가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의 피로도 함께 나를 지치게 했다. 위험한 상황에 기속사를 들어가지 않은 과거의 선택, 코로나에 대한 원망, 나에 대한 미움과 불평,

그런데도 잘해야 한다는 나를 향한 채찍질이 늘어나면서 내가 지닌 가치관과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나를 더 몰아세우는 습관은 결국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고, 이런 거로 나를 이번 한 번만 봐준다는 선택지는 없었다. 스스로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 나는 사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가장 먼저,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반걸음만 해냈다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나아간 것이니 이걸로 됐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했다. 그다음으로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저 익숙해지지 못해서 하지 못한 것이며, 반복하면서 나의 속도대로 해나간다면 언젠가 잘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믿음을 심었다. 몇 년 전, 펜싱 박상영 선수가 올림픽 결승전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처럼 나 역시 나에게 대한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 주면서 희미한 행복마저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나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 내 곁을 떠나간다고 생각한다. 무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찾아오고, 힘든 순간이 지속하면 내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나는 올해 두 번의 좌절을 맛보면서 힘든 오늘일수록,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내일을 맞이하기 위한 자기 자신만으로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점, 좋은 쪽으로 사고의 흐름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언제까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복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피어올 수 있고, 우리의 내일도 언젠가 전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아야만 한다.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김유빈
신학과

현재 난 20년을 짝 채워 살아가고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20년이라 하면 어른들이 보기엔 아직도 아이처럼 보일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보면 성숙하고 멋있는 어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 20살이 되면 난 서울 대학교는 물론 하버드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멋진 직업도 갖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는 나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부모님 용돈을 받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 하지만 난 20년을 살면서 유독 행복에 집착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일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면 늘 돈이 넘치는 삶, 좋은 직장을 다니는 커리어우먼의 삶 이런 걸 떠올렸던 것 같다.

우선 내 행복의 조건은 첫째로 힘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시절에도 조금만 힘들어도 “아, 이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일 이니까 포기할래.” 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리고 괜히 멋있는 사람이라도 된 것 마냥 친구들에게도 내 기준의 행복을 강요했다. “이거 힘든데 왜 하고 있어? 힘들면 그냥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그 래야 행복하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둘째는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돈이 늘 내

행복 기준에 따라다녔던 것 같다. 우리 집은 형편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쩌면 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다.

하지만 올해 내가 성인이 되고,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크게 변화된 삶을 살면서 내 생각도 크게 변화되었다. 돈이 없어도 즐겁게 놀 수 있던 친구들과 만남도 줄었고, 마스크 때문에 숨 쉬는 그것조차 답답하고, 강아지와 산책하러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생활이 지속되었다. 난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았다. 그러다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고, 마스크를 밖에서 밥 먹을 때라도 잠깐 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느 샌가 그렇게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행복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이었다.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걷는 그 모든 일이 행복이었다.

아직도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당연했던 일상이 회복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작지만 커다란 행복을 느낄 것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음이 더 감사고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 올 것이다. 오늘도 난 행복하다. 겨울 냄새가 너무 좋고, 봉어빵이 너무 맛있고, 부모님과 할머니가 건강하시고, 내 친구들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다.

토론과글쓰기2 67분반 우수작

나의(자신의) 행복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채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과연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지내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 다니던 대학교에서 내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그저 화학과 생물공부에 흥미를 느껴 들어오게 된 생명공학과에서 맞지 않는 물리학, 프로그래밍코딩을 마주하였을 때 처음으로 나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을 내 평생의 직업으로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다. 허무함을 느끼고 대학을 나가게 된 그 이후부터 나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행복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아쉽게도 나는 대학교 3학년까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 주위 사람들의 말들과 세상이 말하는 것에만 집중했었고, 결론적으로 생각해낸 내가 좋아하고 행복을 느낀 요소는 ‘금전적인 안정감’ 다시 말해 ‘경제적인 여유’ 였다. 그렇다고 해서 자라는 동안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힘들어 보지 않았기에 내 자신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부분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남들은 대개 취미생활이나 꿈을 행복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 취미생활과 꿈마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려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보다 쉽게 실행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금전적인 안정감과 여유’ 라면, 어떤 직업을 목표로 삼아야 좋을까라는 질문에 매우 간단한 대답, 돈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재테크’와 ‘투자’를 직접 만지고 아우를 수 있는 직업을 하고 싶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는 이러한 나의 우선순위를 향해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에 새로이 진학해 한 발 더 나아가는 중에 있다.

평소 친구들과는 ‘본인이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하며 사는 것과 본인이 잘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둘 중 뭐가 옳은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이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에게 달린 문제이다’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엔 주위 어른들이나 가족들이 말씀해주시는 흔히 말해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들을 목표로 둔 적이 있다. 내가 이전에 다녔던 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이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어른들은 지내온 세월이 길고 나에게 좋은 말일 수도 있기에 그 말들을 참고해 살아가거나 귀담아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다. 내가 진정 원하고 간절하다고 생각해야 목표로 갈 수 있는 의지나 열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주변에는 아직 자신의 꿈이나 직업을 정하지 못해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꽤나 있는데 경험자로서 말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의 행복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부분에 몰두를 하다보면 그저 행복이나 흥미를 뛰어넘어 재능과 적성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직 대학생이 아닌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자신에 대해 공부를 해본다면 분명 자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십니까?

장홍찬
영어교육과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행복은 모든 동식물의 목적이며 삶의 근원이다.

모든 동물은 행복해지기를 좋아한다. 열심히 뛰어노는 공원의 강아지는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도 활짝 웃으며 꼬리를 흔든다. 고양이는 집사에 손길에 의해 그르릉 거리며 잠든다. 식물들도 어찌면 행복을 느낄까? 푸른 하늘의 바람을 맞는 들판의 잡초들은 존재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푸르게 빛을 내고 있다. 해바라기는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해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본다. 잘은 모르겠으나 그들에게선 행복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우리 인간들도 다를 것이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들은 행복의 가치를 알고 있다. 그렇기에 한 일생을 통틀어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자신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행복해져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이름 좀 알린 철학자들은 일평생 연구한 행복을 각자 자기의 주관으로 해석했다. 행복을 찾으려는 후대를 위해 다양한 철학관들을 남겼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행복을 찾는 방법을 쉽게 알려준 것임에 불과하고, 모두가 결과적으로 논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이다.

나는 생각보다 나를 모른다.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영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자신을 소개할 근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한글도 마찬가지다. 학창 시절 자기소개서를 써본 사람은 청소년기의 생활기록부에서 본인 모습을 찾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소개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이 나를 보며 추론한 모습에서 본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알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안과 혼돈만을 초래한다.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성격인지. 많은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행복해지기 위해 나 스스로를 연구해야 한다. 자아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행복은 절로 따라오게 되어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 행복은 개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리적·물질적인 요인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자아 정체성을 이해하고 본인의 인생을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일단 태어났으니 행복해져야 한다.

감사하기

이지은
실용음악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행위이다.

나의 행복은 가정 내의 평안, 건강한 몸과 정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하루하루에 감사하기에서 온다.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나의 행복들은 내 삶의 원천이요, 원동력이다. 하지만 한 때 우울함에 침식되어 있던 나에게는 행복 하라는 말 같은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나도 모르는 내 감정의 골에 빠져 허우적대다 물으로 기어와 겨우 숨만 내쉬던 과거의 나에겐 행복 하라는 말이 그렇게 사치일 수 없었다. 선명하던 나날들이 흐릿하게 추락하던 나에게 행복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감사일기’였다. 사소해도 상관없으니 다섯 번만 그 날 하루의 감사했던 일을 쓰는 감사 일기는 나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처음엔 도피처로 여긴 감사 일기였지만 감사하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안식처로 바뀌어갔다. 손 하나 까딱하기도 벅찼던 나에게 감사는 아득하고도 먼 것이었다. 감사 일기를 쓴 첫날은 날씨가 좋다, 춥지 않다 따위의 간결하고 사소한 감사로 시작했다. 어떻게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겨우 쓴 티가 풍겨오는 첫 날의 감사 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쓰면서도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 몇 번씩 펜을 놓기도 했지만 우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거라도 발판 삼겠다'는 나의 의지가 펜을 붙잡을 수 있게 만들었다.

감사 일기를 쓴 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일기에도 변화가 보였다. 짧고 미숙하기만 했던 일기가 조금씩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면서 나의 감정 상태나 마음가짐도 서서히 바뀌어갔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날씨에 떠나가라 웃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듣기 싫어 이불 속으로 숨기 바빴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이런 날씨가 어울린다며 세상과의 소통을 기피하고 하염없이 내 우울을 어루만지며 잠에 들었다. 내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바뀔 수 있을 거란 희망조차 가지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는 일기를 쓰며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작 하루에 감사하기 다섯 번일 뿐인 일기가 나를 이렇게 바꿀 줄 알았다면 진작 쓰고도 남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어렴풋이 지나갔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노트도 생겼다. 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날 돌보기를 거부했던 나는 노트를 채워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하며 놀라기도 했고 우울해하기만 했던 과거의 내가 안쓰러워 눈물도 났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해 마지않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나.

어쩌면 나는 우울감에 취해있던 걸지도 모른다. 나에게 행복 같은 건 사치라며 먼저 행복하길 거부한건 바로 나였다. 과거의 불쌍한 나를 위로하고 구해주는 건 현재의 나뿐이다.

물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는 법, 매일 행복할 수는 없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일을 눈앞에서 맞닥뜨리고, 넘어설 수 없을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일은 언제나 있었다. 그 때마다 감사할 수만은 없었고 수많은 절망과 좌절 속에 행복을 잃어버린 적도 많았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고, 넘어지면 일어설 수 있듯이 삶의 큰 고비들도 나는 어떻

게든 넘겼었다. 큰 고비 뒤에는 큰 행복이 뒤따라왔고,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선 삶의 고난을 툼툼이 마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기도 어렵다. 나는 고난 뒤의 숨은 행복을 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서 오는 것을 안다. 여전히 나는 우울감에 빠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할 때도 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우울을 벗어나고 관계의 단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보다 성장한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외친다.

누구나 다른 행복의 기준

정영심

광고홍보언론학부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다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각기 다른 행복을 서로 존중해 주고 아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존중해야 나의 행복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우리나라 연예인도 좋아하고, 외국 연예인도 좋아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가끔 내가 좋아하는 문화가 본인이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어서 그런지 비꼬듯이 이야기하곤 한다. 그럼 나는 상처를 받고 다시는 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럼 점점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굳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지 않으면 거리감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의 행복의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는 것은 별개이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찾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듣는 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

위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게임을 하고, 게임 영상을 보는 게 즐겁다. 게임이 좋아서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해보기도 했고, 영상 편집과 방송을 하

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새로 나온 게임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품을 사야 원하는 성능에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며 나는 행복을 느낀다. 좋아하는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가끔은 설렘을 느끼고, 또 가끔은 주체할 수 없는 신남에 빠지기도 한다. 노래를 들으며 내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화가 날 때 기분 전환용으로 들으며 화를 추스르기도 한다. 이렇게 나는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법을 배워간다. 나의 행복은 이렇다. 그래서 묻고 싶다. 당신의 행복은 어떤 거냐고.

토론과글쓰기2 72분반 우수작

마스크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이서영
영어영문학과

코로나 19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장기화가 된 지금은 마스크를 사는 것이 쉽지만 코로나19가 등장한 초반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일이 많았다.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SNS에는 지하철,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 문제로 화를 내며 싸우는 영상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집중력이 필요한 각종 시험들과 수능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 수능은 약 8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시험을 본다. 긴장을 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끼면 집중력이 흐려질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입 모양으로 말을 구분하는 하는 청각 장애인들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대화는 물론 카페에서 주문을 하는 것도 어렵다. 입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된 투명마스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심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인간만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야생동물들은 무단 투기한 마스크의 귀걸이 부분에 몸이 묶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마스크를 먹이로 착각하고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들의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SNS에서는 ‘마스크 귀걸이 자르기’ 운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또한, 마스크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은 고통을 받는다.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마다 새삼 무섭게 느껴지곤 한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를 피하기 위해 소수만 썼던 마스크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쓰고 다닌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라 재난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 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얼굴로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과글쓰기2 73분반 우수작

행복은 안전에서부터 온다.

한상준

소방안전관리학과

행복은 다양하다.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행복을 느끼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먹어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음악 감상을 하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 등 행복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로또에 당첨되어 큰 돈을 얻어야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일명 '소확행'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행복은 안전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했던 큰 행복, 작은 행복의 기회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원초적인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안전한 것이다. 우리가 각종 범죄나 재난 등에 노출된다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다섯 가지의 욕구를 가지는데, 그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비로소 우리가 안전할 때 다양한 행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안전이다. 안전한 환경에서 내가 건강해야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고 삶의 목표가 생겨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한다.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건강하지 못하여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나는 안전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

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다.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해서 신체 단련을 할 때 많은 행복을 느낀다. 만약 내가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찌면 꿈도 못 꿀 수도 있다. 때문에 한가지의 행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복을 찾고 느끼고 또 다른 행복을 찾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안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행복은 안전에서부터 온다.

나의 대학생할

김수빈
미술학부

내가 초등학생 때, 나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오빠와 친언니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나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부러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정해진 수업만 들어야 했던 나와 달리 자유롭게 수업을 듣고, 외모를 꾸미고, 친구들과 멀리 놀러도 가는 모습에 나도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었다. 한번은 오빠가 나를 대학교에 데려갔는데 초등학교와 전혀 다른 학교의 풍경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큰 건물들이 몇 개씩 있고 몇 갈래씩 나뉘지는 도로에 차가 다니고, 길에 보이는 학생들은 모두 어른스러워 보였다. 학교가 넓어 오빠의 친구들과 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때 나는 대학생도 차를 끌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날 이후로 대학생은 재밌는 학교생활을 하는 멋있는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생이 즐거운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언니 오빠를 통해 알게 되었다. 술자리에 끌려가 다음날 숙취에 고생하고 많은 과제와 시험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며 대학생이 마냥 좋은 날만 보내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서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더욱 바라게 되었다. 정해진 공식과 이론들에서 벗어나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기개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할 것이라

다짐했고 마침내 대학에 합격해 진짜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꿈만 같았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강의로 결정되었을 때만 해도 새로운 학교에 가기 전 두려운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첫 레포트 과제에 뭘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온라인 수업 방식에 많이 헤맸을 때에는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이런 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실기과들은 전공 수업을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내 주변에서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하러 학교에 가게 되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입시 때와는 다르게 이제 그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막상 대면 수업을 하니 기대와 달라서 당황도 하고 실망이 됐다. 막 만난 동기들과의 어색함과 오전 수업에 맞춰 아침 일찍 일어나 강의실을 찾아가면 아직 정리되지 않아 먼지와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복잡한 실기실에 힘이 빠졌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그림이 아닌 정해진 주제로 그려야 하는 과제로 내야 하니 기간과 주제에 맞춰 그리기 바쁜 현실에 속상했다. 그래도 입학 전 실기시험을 치르러 왔을 때와는 달리 더 이상 낮설지 않고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소속감에 뿌듯한 마음도 많이 들었다. 고등학교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지랑 많은 건물들, 학교 앞 발달한 상업시설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벌써 2학기도 끝나가며 올해 2020년의 끝이 보이는데 20살의 나는 고등학생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3년 후면 사회에 나가 직업을 갖고 스스로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데 내가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을까 부담도 된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접어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졸업 전 코로나가 종식돼서 온전한 학교생활을 즐겨보고 싶고, 지금의 한적한 학교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활기찬 우리 학교의 모습을 보고 싶다.